

1993학년도 석사학위논문

한국인의 일본어 음성교육

- 서울, 경상,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신 용 태

동국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고 혜 정

1993학년도 석사학위논문

한국인의 일본어 음성교육

- 서울, 경상,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

고 혜 정

지도교수 신 용 태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고 혜 정 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4년 7월 일

주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목 차

1. 서	론	1
2. 본	론	4
2.1.	한·일 양국어의 음운체계의 비교	4
2.1.1.	한·일 양국어 모음 음소의 대조	5
2.1.2.	한·일 양국어 자음 음소의 대조	7
2.2.	한·일 양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과 일본어 음성 교육의 문제점	..	8
2.2.1.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	8
2.2.2.	일본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	11
2.3.	한·일 양국어 음절구조의 비교	16
2.3.1.	한국어의 음절구조	16
2.3.2.	일본어의 음절구조	17
2.3.2.1.	축 음	18
2.3.2.2.	발 음	19
2.3.2.3.	장 음	21
2.4.	모음의 무성화 현상	22
2.5.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24
2.5.1.	제주 방언 구사 일본어 학습자	25
2.5.2.	경상 방언 구사 일본어 학습자	45
2.5.3.	서울 방언 구사 일본어 학습자	59

2.6. 일본어 음성 교육의 문제점 및 그 방향 모색	73
3. 결 론	76
참 고 문 헌	81
ABSTRACT	84
< 부 록 >	88

1. 서론

구조주의 언어학자 Bloomfield¹⁾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言語를 규정한다. 言語는 人間の 한 행동 형태이며, 이는 자극과 반응으로서 배워지는 言語行動(Verbal Behavior)으로 보고 주위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응인 것이다. 유아기의 모방 본능이 언어 습득에 큰 역할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言語는 소리의 조직으로 音聲이 성립되고 언어음의 기본적 단위인 언어의 변별음 즉, 음소(Phonemes)²⁾를 설정하게 한다.

인간에 있어서 언어가 즉 생활이기때문에 인간의 모든 분야와 관련을 맺는다. 言語의 연구가 인간 그 자체의 연구가 되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 소통(communication)의 수단'인 언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문제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小川芳男 (1973)³⁾에 의하면, 독일 시인 괴테는 '하나의 外國語를 모르는 것은 自國語를 모른다.'고 말한다. 이것은 자국어 잘 알고 있으면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자국어가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 중요

1) 구조주의 후천적 언어 습득관은 1957년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를 기점으로 선천적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이성주의에 입각한 변형생성 이론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金芳漢(1970), 言語學論攷, 서울대 출판부, p.65.

2) Bloomfield(1954), language, new york, p.80.

“한 언어의 음소는 소리가 아니라 말할 이가 실지 말소리의 흐름 속에 산출하고 인지 하도록 훈련된 소리의 단순한 자질에 지나지 않는다.”(the phonemes of a language are not sounds, but merely features of sound which the speakers have been trained to produce and recognize in the current of actual speech - sound)고 하였다.

3) 小川芳男(1973), 外國語學習の方法と意義, 日本語 教育 22號, 日本語教育學會, p.6.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어⁴⁾와 모국어가 다른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개 모어와 모국어는 동일한 언어로 외국어를 습득할 경우 언어 형성기가 지난 15세 이후에는 모국어의 발음 습관이 몸에 배어 생소한 제 2언어를 습득하는데 난점이 따른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 모국어와 가르치려는 외국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9세기 이후 이 음성 언어 교육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문자 언어 중심의 교육이 치중되어 올바른 음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일 양국어는 언어의 구조가 유사하여 모국어가 한국어인 者가 일본어를 습득할 때 한국어 간섭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모국어의 음이 일본어의 음에 대치되는 경우들을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각 사례들을 모아 분석해 보고자 한다. 梅田博之氏는 “제주 방언은 서울 방언에 가장 가깝고, 경주 방언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다.⁵⁾ 여기서, 제 2의 언어인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통하여 음성 교육에 있어 일본어 교육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각 방언의 특색을 고려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현대 한국어의 제주 지역 방언, 경상 지역 방언, 서울 지역 방언을 구사하는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제 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 각각 10명씩 선정 하였다. 제주 방언의 조사 대상은 제주도 표선면에 위치한 표선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선정, 경상 방언의 조사 대상은 경주에 있는 신라공업고등학교 학생으로, 서울 방언은 서울 시내에 있는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음 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는 동경 지역 방언을 중심으로 그 음성적 특질을 비교 분석해

4) 대개 언어 형성기 (3 - 13살) 약 10년간에 배운 언어를 말한다.

5) 梅田博之(1963), 朝鮮語諸方言の基礎語彙統計學的研究, 朝鮮學報 第27卷, 天理大學 朝鮮學會, pp.216 - 240.

보기로 한다.

첫째, 한·일 양국어의 음운 체계의 비교

둘째, 한·일 양국어의 음운 체계 비교에서 나타난
양국어의 음소의 특질

셋째, 한·일 양국어 음운의 최소대립어에 의한 분류⁶⁾

넷째, 한·일 양국어 음절구조의 비교

다섯째, 모음의 무성화 현상

여섯째, 발음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일곱째, 일본어 음성교육의 문제점

여덟째, 발음 연구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향 모색

6) 今田滋子(1987), 日本語の發音, 學士院, pp.128 - 170.

허웅(1984), 국어음운학, 정음사, pp.173 - 190.

발음 분석을 위한 자료는 위 책에서 인용하였음.

2. 본 론

2.1. 한·일 양국어의 음운체계의 비교

2.1. 음소의 대조

한·일 음소 대조표⁷⁾

일 본 어	한 국 어
자음음소 1.폐쇄음 p, t, k, b, d, g 2.파찰음 c 3.마찰음 s, z 4.성문음 h, ʔ 5.비 음 m, n, ŋ 6.유 음 r 7.mora 음소 N, Q, R 모음음소 i, e, a, o, u 반모음음소 y, w	p, ph, p', t, th, t', k, kh, k' c, ch, c' s, s' h m, n, ŋ l i, e, ɛ, u, o, a, ɐ, ø, ü, ɨ y, w

(음성기호는 국제음성기호[IPA]를 토대로 표기하였음.)

7) 한국어의 음소는 허웅(1984)에 따라 단모음 10개, 반모음 2개, 중모음 12개, 자음 19개로 하였고, 일본어는 服部四郎에 의한 동경 방언의 음소 체계로 모음 5개, 반모음 2개, 자음 15개, mora 음소 3개로 정하였다.

본 고에 사용된 한국어 음소 및 음성 자모는 다음과 같다.

/p/(ㅍ) [p],[b] /p'/(ㅍ') [p'] /ph/(ㅍ) [ph] /t/(ㄷ) [t],[d] /t'/(ㄷ') [t'] /th/(ㅌ) [th]
 /s/(ㅅ) [s] /s'/(ㅅ') [s'] /c/(ㅈ) [c] /c'/(ㅈ') [c'] /ch/(ㅊ) [ch] /k/(ㄱ) [k],[g]
 /k'/(ㄱ') [k'] /kh/(ㅋ) [kh] /m/(ㅁ) [m] /n/(ㄴ) [n] /ŋ/(ㅇ) [ŋ] /r/(ㄹ) [r],[l]
 /h/(ㅎ) [h] /y/(ㅣ) [i] /e/(ㅔ) [e] /ɛ/(ㅚ) [ɛ] /ɨ/(ㅡ) [ɨ] /ɐ/
 (ㅚ) [ɐ] /a/(ㅏ) [a] /u/(ㅜ) [u] /o/(ㅛ) [o] /ü/(ㅠ) [wi] /ø/(ㅟ) [we]

허웅(1984), 앞의 책, pp.190 - 191.

築島裕(1983), 國語學, 東京大學出版會, p.10.

2.1.1. 한·일 양국어 모음 음소의 대조

한·일 양국어의 모음은 각각 다른 음성적 성질이 있다. 한국어 표준어인 서울 방언의 단모음과 일본어 동경 방언의 모음을 보면, 일본어의 음소에 대응하는 음이 한국어에 있으므로 일본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에게는 유리한 점이 많아 별문제없이 발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음가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모음 중 같은 발음 구역에 있는 음 /i, e, a, o, u /를 간단한 예로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어			서울 방언		
	前	中	後	前	中	後
高	i		u	i ü		i u
中	e		o	e ö		o
低		a			a	
	제주 방언			경상 방언		
	i	ɯ	u	i	ɔ	u
	E	ə	o	E		o
		a			a	

위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영 어	a	ɔ	ʌ	ə	o	u	i	ɛ	æ
서울 방언	a		ə		o	u	ɯ	i	e
경상 방언	a		ə		o	u	ɯ	i	E
제주 방언	a		ɐ		o	u	ɯ	i	E
일본어	a(ア)		o(オ)			ɯ(ウ)	i(イ)	e(エ)	

8)

8) 김공철(1983), 일본어 음운론, 학문사, p.13.

김공철(1988), 방언학, 신아사, p.153.

이승녕(1985)에서 [E]는 /e:/ɛ/의 변이음역(allophonic range)으로 변별의 기능

위와 같이 국어의 /a/는 관점에 따라서 일본어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본어 보다 입을 크게 벌리는 보다 후설적 저모음이다. 따라서, 일본어 ㅏ 모음은 /a/와 /ɑ/의 중간음으로 /ɑ/로 발화하도록 한다.

국어의 /i/도 일본어에 비해 턱을 벌리는 정도가 다소 크지만 별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국어의 /u/는 영어에서의 /u/가 원순 후설 모음이란 점을 다시 인식시키면서 일본어의 경우 우모음 [ɯ]은 평순 모음인 비원순 중설 협모음에 가까운 음이라고 학습자에게 납득시킨다. 또, 치경음 /su/, /zu/, /cu/의 경우, [sɯ], [zɯ], [tsɯ]와 같이 우[ɯ]는 자음에 따라서 그 음이 앞쪽 치경음으로 이동하여 중설의 [ɯ]가 된다. (이는 /u/ -> [ɯ]/[s,t,z]_의 규칙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화하도록 주지시킨다.

/e/는 서울 방언을 구사하는 발화자에게는 [e]:[ɛ]⁹⁾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대어(minimal pairs)로서 발음 연습을 구분하도록 하지만, 제주 방언을 구사하는 발화자는 정확히 일본어의 ㅓ[e] 모음을 발화할 수 있었다.¹⁰⁾ /o/는 영어의 [ɔ]에 가까운 음이지만, 한국어의 [o]에 가까운 음으로 발화하더라도 단순한 음성¹¹⁾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 음에 대한 변별력을 갖고 있다. 반모음 /y,w/는 양국어 모두 동질 동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난점은 없을 것이다.

이 상실되어 그 간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주 방언 구사자 가운데 연소층은 식별력을 잃고 있으나, 50대 이후 층들은 정확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배 (布) [pe], 배 (腹) [pɛ]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p.1.

9) 경상 방언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지만, 서울 방언 구사자와 같이 다음과 같은 예로 구분을 짓는다. 代 /te/, 竹 /tɛ/, 煙 /ne/, 川 /nɛ/

10) 김공철(1983), 앞의 책, p.13.

11) 異音を 가르킴. 김공철(1983), 앞의 책, p.15.

2.1.2. 한·일 양국어 자음 음소의 대조

한국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비롯하여 전세계의 일본어 학습자에게 대부분 볼 수 있는 문제로 외국어 이해와 표현에 있어 모국어의 형식, 의미 분포를 전이(transfer)시킨다는 개념에서 대조 분석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음이 일본어의 음에 대응되는 현상이 언어 학습에 있어 극복할 점으로 양국어의 음운 분석을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자음 음소 체계에 있어 한국어의 평음:경음:격음의 삼중 대립과 일본어의 무성음:유성음의 이중 대립을 서로 고찰한다면 학습자가 보다 용이하게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국어 자음 음소 조직표

변별적 자 질		전 설 성				후설성	후두성
		양순음	치 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장 에 음	평 음	p	t	c	s	k	
	경 음	p'	t'	c'	s'	k'	
	격 음	ph	th	ch		kh	h
향 음	비 음	m		n		ɳ	
	유 성			l			

일본어 자음 음소 조직표 12)

변별적 자 질		전 설 성			후설성	후두성
		양순음	치 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파 열	무성	p	t		k	ʔ
	유성	b	d		g	
마 찰	무성	ɸ	s	ʃ ç		h
	유성		z	ʒ		
파 찰	무성		ts	tʃ		
	유성		dz	dʒ		
비 음 유 음		m	n r			
mora음소			ɴ Q		ɴ	

2.2. 한·일 양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과 일본어 음성 교육의 문제점

2.2.1.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

먼저, 한국어의 경우 크게 장애음과 향음의 차이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허웅(1984)에서는 장애음을 터짐소리, 같이소리라 하고 이를 또한 순

12) 본 고에서 사용된 일본어 음소는 다음과 같다.

/ʔ/(후두음), /h/(ハ行), /g/(ガ行), /k/(カ行), /d/(ダ行), /t/(タ行), /b/(バ行), /p/(パ行), /z/(ザ行), /c/(チ, ツ), /s/(サ行), /ɲ/(ガ行鼻濁音), /n/(ナ行), /m/(マ行), /r/(ラ行), /y/(ヤ, ュ, ヨ), /w/(ワ), /i/(イ), /e/(エ), /a/(ア), /o/(オ), /u/(ウ), /N/(ン), /Q/(促音), /R/(長音)

간음이라고 한다. 향음은 흐름소리와 콧소리를 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p:/m/, /t:/n,l/, /k:/ŋ/의 구분이다. 장애음에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변별적 자질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p	p'	ph ¹³⁾
t	t'	th
c	c'	ch
k	k'	kh

한국어의 된소리인 경성, 기음이 강한 거센소리 기성이 일본어에는 없고 일본어의 유성음 /b/가 한국어에는 음소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단, 어중에서는 유성으로 발음이 된다.

불	뿔	풀
[pul]	[p'ul]	[phul]
달	딸	탈
[tal]	[t'al]	[thal]
갈	갈	칼
[kal]	[k'al]	[khal]

13) [p,t,k]의 파열이 있고 난 다음, 강한 기음이 동반하는 유기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숨의 크기에 따라서 기호적으로 [ph]>[p]>[p']와 같이 표기되며 무기의 [p]로 구별되지만, 일본인은 유기음을 의식하지 않고 거의 무기의 [p]로 나타낸다. 허용(1984), 앞의 책, p.168.

국제음성학회에서는 [h][']로서 기의 강약을 나타내고 있다. [ph]는 영어의 [p]보다 폐쇄, 파열이 강하다.

김승곤(1983), 음성학, 정음사, p.91.

위의 사례가 각각 대립적 변별적인 자질을 갖고 있지만, 음성적 자질은 위치에 따라서 중화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낫=낫=낫=날 이란 음이 서로 비슷한 변별적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중화되는 것을 말한다.

곰 보	키다리	고 기
/ko:mpo/	/ki:tali/	/koki/
[ko:mbo]	[ki:dali]	[kogi]
우 비	과 도	감 기
/upi/	/kwato/	/ka:mki/
[ubi]	[kwado]	[ka:mgi]

[p]음은 유성음 사이에서 [b][β]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β]의 경우 대체로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나타나는 아버지[aβ•ci], 부부[puβu]가 이것에 해당하는 음이다. 이 음은 [b]로 대체하는 변이음의 한 음소로 볼 수 있다. 현대 일본어에서도 무성 양순 마찰음[ɸ]에 대응하는 유성음[β]은 정중한 발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アブナイ!'하고 외칠 경우에는 [βu]로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¹⁴⁾ [t]음은 [d], [k]음은 [g]로 각각 그 분포를 이루고 있다.¹⁵⁾

14) 今田滋子(1989), 앞의 책, p.55.

服部四郎(1971), 音聲學, 岩波書店, p.71.

15) $\left[\begin{array}{l} - \text{continuant} \\ - \text{aspirated} \\ - \text{glottal} \end{array} \right] \text{----} \rightarrow [+voiced]/[voiced] \text{ ---} [voiced]$

이런 규칙 환경에서 유성음화 현상이 일어남. 그러나 語頭音에서는 이 현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2.2.2. 일본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

현대 일본어에 있어서 폐쇄음은 6개로 한국어와 동일한 위치와 자질을 갖고 있으나 이 음은 유성음:무성음의 이중대립을 이루어 그 의미를 구별 짓는 시차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대 일본어 동경 방언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 폐쇄음은 다음과 같다.

p	t	k
b	d	g

위와 같이 이중대립을 이루는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1) | パパ | タケ | カキ |
| | /papa/ | /take/ | /kaki/ |
| | [papa] | [take] | [kaki] |
| (2) | ババ | ダケ | カギ |
| | /baba/ | /dake/ | /kagi/ |
| | [baba] | [dake] | [kagi] |

(1)(2)의 사례들은 현대 일본어에서의 이중적 대립을 엿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발화자는 대부분 한국어의 유성음화 규칙에 의해 무성자음이 유성음 사이에서 (1)의 자료를 [paba], [tage], [kagi]로 발음하기 쉽다. 그리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인은 음소 자체의 어중에 있는 무성음의 변별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パパ’의 경우, 음운론적으로는 /papa/로 표기하지만 실제 음성으로는 [pap'a]와 같이 [p]에 경음

부호[']를 붙여서 그 음을 더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또, (2)의 자료의 경우 한국어는 어두에서 유성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phaba], [thake], [khaki]와 같은 음으로 대체하여 발화한다. 이 현상은 제주 방언을 구사하는 학생들에게서 더 현저하다. 왜냐하면, 어두에서 격음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경상 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k:g:ɸ 연구개 폐쇄음의 대립에서 [k]:[g]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성음:유성음의 시차적 차이를 볼 수 있는데 [g]:[ɸ]음의 관계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ɸ/는 흔히 力行鼻音이라고 하며 동경 방언에서 표준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g/와 /ɸ/음소는 '하나의 異音으로 보는가', 아니면 '두개의 음소로 보느냐' 하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 有坂秀世는 /g/와 /ɸ/은 음운론적 대립에서 다시말하면, /daigo/와 /daiɸo/란 단어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화자의 목적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음소로 보는 입장이다. 또한, 服部四郎도 두개의 음소로 보고 어두에서 /g/가 되고, 어중에서 /ɸ/이 되는 것은 환경에 의한 동화 현상으로 음성학적 유사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¹⁷⁾ 그런데 金田一春彦이나 柴田武는 /g/와 /ɸ/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동일 음소로 보고 [ɸ]을 [g]의 異音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음소들 가운데 [ɸ]음소는 낮은 소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고 그 기능이 쇠퇴하여 양자 간의 음운론적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g/의 異音¹⁸⁾으로서 [ɸ]이외에 ga행鼻音이 없는 방언에서 모음 사이에 연구개 유성 마찰음이 나타난다.¹⁹⁾

16) 신용태(1986), 일본어 음성 교육에서의 문제 사례고, 일본학보 제16집, pp.48 - 49.

17) 服部四郎, 新版 音韻論と正書法, 大修館書店, pp.320 - 321.

앞에서 언급했던 有坂氏의 설은 이와 일치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 합치하지 않는 점도 있다. [sa][si][sja]를 有坂氏는 [sa][ʃi][ʃa]로 본다.

18) 金田一春彦(1993), 日本語音韻の研究, pp.168 - 196.

19) /g/의 異音으로서 [ɸ]이외에 ga행 비음이 없는 방언에서는 모음사이에 [ɣ]음이 나타난다. 한국어의 경우 /m^hke/ [m^hg^he] [m^hɣ^he].

‘鏡’을 kagami > kaḡami > kaɣami 에서 처럼 ga음이 약해져서 [가아미]와 같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두개의 음소로 보는 服部四郎의 이론을 따라서 ㄱ行鼻子音에 대한 발음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경우 어두에서는 /ḡ/은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즉 논비/nobipi/, 강이 /kaḡi/와 같이 어중에서만 볼 수 있으므로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 현상은 오늘날 일본어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馬瀬(1988)은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NHK아나운서 양성에서도 거의 대부분 ㄱ行鼻子音 발음의 부정확한 아나운서에 대해 방송용어위원회에서도 발언이 없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한국어에 있어 파찰음계는 /c,c',ch,s,s'/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c/음소는 한국어의 [ㅈ] 경구개 파찰음이다.²⁰⁾

(3) 자 다	짜 다	차 다
/cata/	/c'ata/	/chada/
[tsada]	[ts'ada]	[tshada]

(3)의 경우 /c,c',ch/음소는 각각 시차적 차이가 보이는데, 어두에 오는 [ㅈ]은 무성음의 [ts]이나, 어중에 오는 경우 예를 들면

(4) 감 자	가 짜
/ka:mca/	/kac'a/

20) 이것은 잇몸소리의 파찰음 [ts]로 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그 유성음도 [dz]로 내고 또, 기음의 [ㅈ]도 [tsh]로 발음한다.
허용, 앞의 책, p.34.

[ka:mdza]

[kadz'a]

(4)의 자료에서 보듯이 [ɺ]는 유성의 [dz]로 발화된다. 즉 평음:경음의 이중대립을 하고 있다.

현대 일본어의 마찰음계는 /c,s,z/로 볼 수 있다. 먼저 /s/음²¹⁾은 치조의 앞 부분과 혀 끝으로써 조음된다. 치아 뒤와 혀 끝과의 사이에서 조음되더라도 좁힘을 더하면 파찰음 /dz/가 된다. 이것은 [ts]의 유성음인데 한국어에서는 [ɺ]는 [dʰ]나 [ts]로 내는 일이다.

(5) ケ チ	ツ キ
/ketsi/	/tsuki/
[ketʃi]	[tsũki]
(6) ザンネン	ズルイ
/dzaNNen/	/zurui/
[dzannen]	[dzũrwi]

(5)(6)의 자료에서 현대 일본어의 마찰음 /s/의 유성음 /z/음이 어두에 올 경우, 마찰음[z]로 발음하기 어려워서 파찰음[dz]로 발화하는 경우이다.²²⁾ 케치[ketʃi]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발음할 때 [kec'i]와 같이 ツ키[tsũki]를 발화할 경우, [c'ũki] 또는 마찰음의 [s'ũki]로 발화한다. 일본어의 /dz/는 [dʰ]와 같은 발음으로 /ts/는 [tʃ]음으로 조음점이 연구개 쪽으로 옮겨 음 대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의 평안 방언은 구개

21) 제주도 방언 △ 음 기원의 어휘는[s]음으로 유지된다.

예를 들면, 앞이 > 아시 > 아시 [afi], 이 말은 경상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임.
이승녕(1985), 앞의 책, p.7.

22) 馬淵和夫(1979), 國語音韻論, 笠間書院, p.19.

화가 일어나지 않아 일본어의 /dz/, /ts/음이 비슷한 위치에서 조음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²³⁾

현대 한국어의 성문 조음에는 /ʔ,ɦ,h/음으로 나타난다.²⁴⁾ 먼저 [ʔ]는 국제 음성기호(IPA)의 표시로 매우 높았을 때에 발음하는 “악”[ʔaʔ]하는 성대 파열하는 소리로 시작하여 다시 끄트머리에서는 목청을 닫는다.

이런 소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²⁵⁾ 언어에 따라서는 독일어에서 어두의 모음이 반드시 성대 파열이 따르게 되어있다.(ʔalt,ʔarbeit)

다음 /h/행은 음운론적으로 모두 /h/이지만 음성적으로는 [h]음은 [ha,he,ho]이고, [h]음이 유성음간에 놓여 즉, [i]모음 앞에서는 중설이 연구개 쪽으로 상승하여 공기의 통로를 좁히고 난 다음 기류를 세차게 내보내는 [ç]의 발음이 있다. 또 [u]모음 앞에서는 같은 혀의 위치를 잡고 양입술을 오므렸다가 호기를 불어내는 양순 무성 마찰음으로 [ɸ]음으로 쫓붙음 끝때 ‘후!’ 하고 내는 소리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는 모국어의 무음 /h/의 영향으로 일본어 [h]음을 발음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사나이 답게’란 뜻의 /en hommme/ 은 [æn̄m]으로, /hôtel/은 [ot̄ɛ]로 /h/음은 발음되지 않아서 ‘ホテル’를 ‘オテル’로 발화하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수 있는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경우 표준어 서울 방언에서 ‘고향, 허리’ 따위의 ‘ㅎ’소리의 마찰이 분명하지 않다. 제주 방언에서도 모음인 유성음에 이끌려 성대와 가까운

23) 신용태(1986), 앞의 논문.

24) 김승곤(1983), 앞의 책, p.112.

25) 일본어의 축음(T)이 이에 해당하는 성문 폐쇄음으로서 음소의 자격을 갖춘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來テ [kit'e] : 切ッテ [kiʔt'e]

일본 琉球 방언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다. ‘息’ [ʔi:tsi] ‘帶’ [ʔu:bi]

후음으로 조음 위치를 바꿔서 나타나는 경우를 엿볼 수 있다.

하품 > 하피음 > 하희흙 > 하외염 [hawej◦m]

아흙 > 아음

흙 > 심

가령, /anoɦito/를 정확히 발음한다면 [anoɦito]²⁶⁾가 되지만 회화에서 좀 빨리 읽게 되면 [anoito]로 발화할 수 있다.

2.3. 한·일 양국어 음절구조의 비교

2.3.1. 한국어의 음절구조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10개의 단모음 그리고, 이 단모음과 2개의 반모음이 결합한 중모음이 음절의 핵이 된다. 단모음이나 중모음만으로 음절이 구성될 수 있고 단모음이나 중모음이 자음과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 점은 일본어와 흡사하다. 즉, V형, CV형, VC형, CVC형으로 그 음절을 형성한다. 특히 CVC형은 한국어에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CV형인 경우, 일본어와 유사한 개음절로 제주 방언에서는 용언 활용이 될 때 그 어간 말자음과 자음어미와의 사이에 표준어에서 볼 수 없는 모음 ‘으’의 개입으로 그 음절은 개음절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표준어 “같다 (如)”, 제주 방언에서는 “ㄱ트다”와 같이 어간 2음절이 개음절형을 이룬다.

이것은 알타이어족의 음운적 특성인 多音節語이며, 개음절어라는 범주에 들어맞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일본학자 大野晋氏도 “일본어의 단어가 단

26) 일본 관동지방에서는 /hi/를 /si/로 발음하여 ‘アノシト’라고 하고 있다.

순한 자음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모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한다.²⁷⁾

2.3.2. 일본어의 음절구조

한국어의 음절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어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을 형성하나 보기도문 자음으로 끝나는 폐음절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모라음소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음소는 환경에 따라 여러 자음으로 바뀌며 보통 한 음절의 길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이런 음소가 없기 때문에 발화하는데 난점을 가지고 있다. 음절이란 모음 또는 이것과 자음이 결합하여 구성되는 음성 단위를 말한다.²⁸⁾ 특히 일본어의 음절의 구조는 V형, CV형, C형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음절에 대한 諸 이론은 다음과 같다.

服部四郎은 외국어에 있어 음성학적 검토 결과에 준하는 ‘음성적 단위’를 ‘음절’이라 하고, ‘음운적 단위’를 ‘mora’로 기술하고 있다.

琴 [koto]	2 음절	2 mora
甲 [ko:]	1 음절	2 mora
紺 [kon]	1 음절	2 mora

위와 같은 방법의 해석으로 모순이 생기면서 金田一春彦는 리듬의 단위로 有坂秀世氏에 의한 <음운론적 음절>, 服部四郎氏에 의한 <mora>의 단

27) 大野晋(1974), 日本語の起源, 東京, 岩波書店, p.84.

김홍식(1977), 용언의 말음 모음에 대하여, 제주대 논문집 9집, pp.35 - 36.

28) 杉藤美代子(1990), 講座 日本語と日本語教育 3, 日本語の音聲・音韻(下), 明治書院, pp.10 - 12.

위를 金田一春彦氏는 <拍>²⁹⁾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모든 이론의 공통점은 일본어 음절에 대하여 특히, 長音, 促音, 撥音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일본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음소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런 발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음성적으로 학습자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각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자 한다.

2.3.2.1. 促音³⁰⁾

‘つまる音’이라고 하며 자음의 지속부이며, 1拍을 이루는 모라음소이다. 어두와 어말에 오는 경우는 없고, 무성자음인 것이 보통이다.³¹⁾ 이 음소는 조음할 때 후두에 긴장을 하게 되므로 ‘성문 조해음’³²⁾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조해음(obstruent)’이란 폐쇄음과 마찰음을 합성한 명칭으로 조해음의 폐쇄음이나 마찰음 앞에 오면 조음점과 조음 방법에 있어 中和가 일어나서 동질 자음이 된다.

음성학자 鳥居(Torii)는 ‘외국인으로서 일본어 발음의 능숙도를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로 이 促音を 제대로 발음하느냐가 좋은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후술하게 될 長音과 관련하여 모음을 길게 발화하여 음의 길이를 인식시키는 유사한 음연속으로 대비하여 최소대립어(minimal pair)를 이용한 발음 훈련과 동시에 促音에 대한 拍의 개념을 인식시킨다.

한국어의 경우 종성 자음 [k, t, p, s]등도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29) 본 고에서는 일본어 음절의 단위를 金田一春彦氏(1993)에 의한다.

30) 日本語 促音 ツ 를 대표음 /Q/로 표기한다. 환경에 따라 후속하는 음이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31) 즉, 유성음과 결합 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래어 ベッド/beQdo/ バッグ/baQgu/의 경우는 제외한다.

32) 성문 마찰음 /h/ 비조해음 반모음 /y,w/ はじき音은 결합하지 않는다.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학 교	받 다
/hakkyo/	/patta/

연습 자료 내용에 ‘イッタッテ’등 축음이 여러 가지 반복 될 때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의하여 발음하도록 한다.

‘イッタッテ’가 ‘イタッテ’ 혹은 ‘イッタテ’로 실수하는 경우 발화자의 모국어로 인한 전이 즉, 간접으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수개의 促音を 가진 언어 재료로 ‘キッテキテモラッタ’, ‘キッテイテモラッタ’등과 같이 반복된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2.3.2.2. 撥音

이것은 ‘はねる音’이라고도 하며 특수음소로 한 拍의 의미를 갖는다. 어두이외의 환경에서 모음 뒤에서만 나타난다. 음소적으로 /N/으로 대표음을 나타내지만 실제 발화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異音³³⁾으로서 나타난다. [m,n,ɲ,ʃ,N]의 異音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조건이음으로 후속음의 조음점, 조음자에 대한 동화를 나타내는 鼻音이다.

サンボ	タンボ	サンマ
[sampo]	[tambo]	[samma]

33) 異音이란 어떤 음소에 속하는 개개의 음으로 복수개의 이음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경우, 그 異音은 條件異音이라고 한다.

文化廳(1988), 音聲と音聲教育, p.35.

アンタ	サンダイ	サンジ	アンナ
[anta]	[sandai]	[sandzi]	[anna]
アンコ	メタンガス	サンゴ	コンヤク
[aŋko]	[metaŋgas̄]	[saŋŋo]	[konʲak̄]

위와 같이 /N/음은 순음인 [p,b,m] 앞에서는 [m]음, 치경음 [t,d,n,r]앞에서는 [n]음으로, [k,g,ŋ] 앞에서는 [ŋ]음으로 異音 처리 된다. 그리고,[N]음이 末部에서 [ʃ][ç][i]의 앞에서는 비모음 [i] 또는 그것에 유사한 음에 또 [ɰ][o][a] 앞에서는 비모음 [ɰ]³⁴⁾와 유사한 음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면, ダンウ(彈雨) [dāɰ], ダンアン(斷案) [dāɰā], ナンオ- (南歐) [nāoo]와 같은 것이다. 撥音은 일본어의 특수 음소이므로 한국어의 경우 拍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잘못하여 발화하기 쉽다. 서울 방언에서도 향음 /n/, /m/에 /p/, /m/이 이어질때 앞소리는 뒷소리의 조음위치로 이동한다.

신 문	눈 물	감 기
/sinmun/	/nunmul/	/ka:mki/
[simmun]	[nummul]	[kaŋgi]

위의 자료내용 중 신문의 경우 음절 구조상으로는 2음절이지만, 일본어의 경우 /N/의 자리에 1 mora가 있어 '시口부口'과 같이 4 mora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경상 방언의 구사자들은 [n]음이 개입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치다' [kontʃhi:nda]와 같이 'ミンナ'[min:na]를 발화할 때 경상도에서는 撥音 앞 모음을 長音 처리하여 [mi:nna]로 발음하고 있다.

34) [ɰ]의 음성기호는 비음화를 나타낸다.

2.3.2.3. 長音³⁵⁾

‘引き音’이라고 하며, 모음을 길게 늘어 뜨리는 견해가 있으며, 특수 음소로 음운론적인 拍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이 說에 의하면,

アア	イイ	ウウ	エエ	オオ
aR	iR	uR	eR	oR
[a:]	[i:]	[u:]	[e:]	[o:]

위의 음성 자료 중 장음 부호 [:]의 부분은 모음 음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적 관점에서는 2拍分으로 발음을 유도한다.

エイ	オウ ³⁶⁾
/ei/	/ou/
[e:]	[o:]
サトオヤ	サト-ヤ ³⁷⁾
/satooya/	/satooya/
[sato oya]	[sato:ya]

35) 특수 음소로 보기도 하고 초분절소로 보기도 한다. 음성학적인 면에서 정확한 拍의 길이는 아니지만 음운론적으로 하나의 拍으로 해석한다. 여기서는 특수음소로 다룬다.

紫谷方良, 影山太郎, 田守育啓(1981), 言語の構造(音聲・音韻), くろしお出版, pp. 71 - 72.

36) 최근의 경향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서법의 영향으로 [ei][o:]로 발음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자료는 현대 일본어에서 일반적인 발음으로 지도 되고 있다. 今田滋子(1989), 앞의 책, pp.78 - 79.

37) 金田一春彦(1993), 앞의 책, pp.133 - 153.

한국어의 장모음은 자유모음이라고 하며, 단모음에 비하여 조금 길 정도로 한 음절의 길이 만큼 길지않다. 가령,

밤	말	눈	솔
[bam]	[mal]	[nun]	[sol]
[ba:m]	[ma:l]	[nu:n]	[so:l] ³⁸⁾

위와 같이 문자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발음 음성으로는 장단의 대립이 생긴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서울 방언을 구사하는 30대 이하에게서 이 장단모음의 변별력을 잃고 있다.³⁹⁾ 이에 최소대립어로 장모음에 대한 음의 길이를 인식시켜 변별적 의미를 갖게 한다.

2.4. 모음의 무성화 현상

모음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않고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으나 입술이나 혀의 운동으로 그 통로의 끝만이 약간 변이를 입게 되는 소리를 말한다. 즉 유성음을 말한다. 그러나 무성의 모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하하’ 하고 계속 발음하다 보면 그 혀나 입술의 모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어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ㅎ’은 그 혀나 입술의 모양은 ‘아’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두 소리의 다름은 유성이나 무성이나의 차이에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 방언에서 ‘축축하다’ 제 1음절의 모음은

38) 음성기호 [:] 는 長音을 의미한다. 한국어의 경우 한 음절 속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語頭와 語中에 도출 될 때 그 음소의 길이는 달라 진다.

군 밤	한 말
[gumbam]	[hammal]

39) 신용태(1986), 앞의 논문, p.60.

발음되지 않는다. 이 발음은 [tʃhɰktʃuːkhada]로 [tʃh]와 [k]사이에 무성화하여 [ɸ]로 나타나고 있다.⁴⁰⁾

일본어의 경우, 동경 방언의 특색으로 일본어의 모음은 일반적으로 (1) 어두이외의 자리에서, (2) 무성자음 사이에 개재할 때 [i],[u], (3)액센트가 없을 때 무성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환경에 놓인 開口度가 좁은 모음 즉 협모음의 경우 무성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⁴¹⁾

협모음과 무성자음이 마찰음인 경우, 이것 이외 무성자음(파열,파찰음)에 비하여 무성화가 일어나기 쉽다. 이 환경을 /CVC/환경이라고 부른다.⁴²⁾ 또, 무성 음절에 유성음이 후속하는 환경에서는 비자음이 후속하는 경우에 무성화가 생기기 쉽다. 일본 鳥取市の 무성화 생기율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언어적 요인을 살펴 보면, /CVC/는 비자음, 유음, 반자음을 포함한 유성자음이 후속하는 경우, /CVN/ 비자음이 후속하는 경우, /CV#/ 문종의 무음구간이 후속하는 경우, /CVD/유성파열음([d,g])가 후속하는 경우,/CVR/는 유음이 후속하는 경우,/CVS/는 반자음(ヤ행,ワ행자음)이 후속하는 경우 모음이 무성화하고 있다. 동경 방언 ハハ[hɰɦa]의 발음은 모음의 무성화, 그 밖의 聲의 유무에 관한 현상으로 [h의 유성화]가 있다. 무성화는 언어적인 의미의 대립에 관여하지 않는 현상으로 현실적인 언어 행동에서 발화자의 출신지, 연령, 성별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만을 전하고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 모음의 무성화는 능동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되는 음성적 특징이며, [h의 유성화]와 같이 화자가 관여할 수 없는 성문의 물리적 조건대로 해결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경 방언의 특색이므로 무성 자음은 [k,k',s,ʃ,t,tʃ,ts,h,ç,φ,p,pj], 다시 말하면 か, さ, た, は, ば行에 자음이 끼었을 경우

40) 허용(1984), 앞의 책, pp.170 - 171. [ɸ]는 [ɰ]의 무성음을 표기한다.

41) 김공철(1983), 앞의 책, p.57.

42) 前川喜久雄(1990), 母音の無聲化,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 2,日本語 音聲・音韻(上), pp. 135 - 153.

에 협모음 [i][ɰ]가 무성화하는 것을 그리고, 협모음이 아닌 모음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발음해 보도록 한다.

ハハ	ココロ	ハカ	セツカク
母	心	墓	折角 ⁴³⁾
[hɯ̥ʌ]	[kɔ̞koro]	[hɯ̥ka]	[sɛ̞k'akɰ]
キク	クサ	アリマス	ヒカリ
菊	草		光
[kʲikɰ]	[kɯ̞sa]	[arimasɯ̞]	[çʲikari]

여기서 학습자로서 특히 미국인계는 로마자 사용의 경우 “des”, “mas”로 쓰는 학습자가 있을 정도로 무성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국인도 이런 무성음을 유성음으로 강하고 길게 발음하려고 한다.

2.5.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음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제 2 언어인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통한 일본어 음성 교육이 각 방언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일 양국어의 음운 체계에 따른 모음 음소, 자음 음소의 각 특징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음소를 발화 할 경우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43) 天沼寧의 2명(1985), 日本語音聲學, くろしお出版, p.55에서 引例.

2.5.1. 제주 방언 구사 일본어 학습자

1. 모음 음소

현대 일본어 동경 방언의 모음은 / a, i, ɯ, e, o / 5개 이며, 제주 방언의 모음은 / a, ɸ, ɔ, o, u, ɯ, i, E / 8개 이다. 제주 방언의 모음 중, /ɔ/ [ɸ]는 노년층에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음소이지만, 젊은층에서는 점차 소멸해 가고 있는 ‘아’와 ‘오’의 중간음이다. 이 음은 일본어의 ɔ列의 음보다 좀 더 원순성을 띠고 있고, 이 방언에서는 이 음을 ɔ列의 음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을 보면, 옛부터 한가지 原音을 연구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한다.⁴⁴⁾ 또, / e / 와 / ɛ / 의 음을 연소층에서는 정확한 식별력을 잃고 있어 이승녕氏(1985 :1)에 의하면 이런 음의 중간음 [E]음 일본어의 [e]음과 유사한 음으로 발화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 방언을 모어로 하는 피실험자 우수한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발음 실태 조사를 해 보았다.

아래의 예문은 최소대립어 (minimal pairs)⁴⁵⁾ 에 의한 변별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로 올바른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 | | | |
|------------|-------|---|--------|
| (1) うま (馬) | [ɯma] | 을 | [uma]로 |
| うめ (梅) | [ɯme] | | [ume] |

44) 小倉進平(1925), 南部朝鮮の方言目録, 朝鮮史學會, pp.1 - 3 .

「和漢三才圖會」등에 하늘(天)를 「波乃留」(はのる), 물(馬)을 「毛留」(もる)등을 들 수 있다.

45) 음성적 환경이 같으면서 한 가지 요소의 차이만으로 뜻이 달라질 때, 이와 같이 낱말의 뜻을 분화하는 최소의 음성적 차이를 minimal distinction이라 하고 최소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두 낱말을 최소대립어(minimal pair)라 한다.

あい (愛) [ai]	[ai]
あう (會う) [au]	[au], [a ^w]
かえ (買え) [kae]	[khae], [gae]
かお (顔) [kao]	[khao]

일본어의 /ウ/ [u]는 [u]의 평순음인데, 梅田氏에 의하면 한국어의 /ㅡ/[ɨ]에 가장 가까우나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약간 앞쪽이고 혀도 약간 적게 올라감으로 咽頭腔의 모양이 약간 다르다고 한다.

うま, うめ, うもれる 등 경계가 없는 マ, メ, モ 앞의 /ウ/가 어두, 어말에서 모두 원순의 [u]모음으로 발화하였으나, /ウ/모음에 대한 조음방법을 설명한 다음 다시 발음을 시도한 결과, 어두에서는 평순의 [u]음으로 발화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어말에서는 마찬가지로 원순의 [u]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あう[a^w]의 경우 3명은 올바르게 구사하고 있었지만, 7명은 원순의 [u]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하였다.

그러나, /u/앞에 오는 /c,z/에 해당하는 음 [ts,dz]가 설단의 앞 부분과 잇몸의 앞 부분 사이의 폐쇄가 순간적으로 유지 된 후 설단의 파열이 일어나, /u/ 모음이 중설적인 [ɯ]로 각각 [tsɯ, dzɯ] 로 발음된다. 즉, とういつ [tooitsɯ]를 철자법의 [touitsɯ]로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어말의 /u/모음은 바르게 발화하고 있다.

かえ[kae], かお[kao]의 예 가운데 자음 [ka]에 대한 발음은 다음 자음 음소에서 다루고자 한다. 일본어의 모음 /a, e, o/는 제주 방언 /a, E, ɐ, o / 각각의 모음으로 대치하여도 같기 때문에 유사한 음으로 발화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음소의 조음 방법과 위치를 설명하고 발음시킨다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2. 자음 음소

한국어의 자음체계는 양순 파열음 / p, p', ph / [ㅍ, ㅑ, ㅑ], 치경 파열음 / t, t', th / [ㄷ, ㄸ, ㅌ], 연구개 파열음 / k, k', kh / [ㄱ, ㄲ, ㅋ], 경구개 파열음 / c, c' ch / [ㅈ, ㅉ, ㅊ] 즉, 평음, 경음, 격음의 삼중대립을 이뤄 각각 변별적 차이를 보인다.

소리내는 자리 지속부를 터뜨린 다음 열렸던 목청문을 다시 닫고서 목청을 울려내는 소리로서 날숨이 계속되어 나올 때 생기는 거친 소리를 氣音 (aspiration)이라고 한다. 지속부에서의 조음과 동시에 목청이 울리지 않는 소리는 유성화음 (voiced sound)이라고 하고, 목청이 울리지 않는 소리는 무성화음 (voiceless sound)이라고 한다.

국제 음성기호로는 [p], [t], [k] - [p'], [t'], [k'] - [ph], [th], [kh]로 나타내며 숨소리가 적고, 많고, 아주 많고를 구분한다. 한국어의 'ㅑ', 'ㅌ', 'ㅋ'는 무성 거센소리 [ph], [th], [kh]인데, 평음 [p], [t], [k]보다 훨씬 날숨이 많고 긴 거센소리이다. 그런데, 평음 [p], [t], [k]는 어중에서만 유성화음 (voiced sound) [b], [d], [g]로 발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⁴⁶⁾

일본어 자음체계는 우선, 조음 방법에 의한 파열음이 강한 폐쇄음 硬音 (fortis) /p, t, k/ 즉 清音, 半濁音과 파열음이 약한 폐쇄음 軟音 (lenis) /b, d, g/ 濁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전자는 무성음, 후자는 유성음으로 이중대립을 이루어 변별적인 차이(distinctive features)를 보인다. 모음간 자음 / p, t, k /는 전 후 모음의 영향으로 平音으로 발음되는 무성 무기음 [p], [t], [k] 이지만, /N - /, /Q - /는 양순의 폐쇄와 성문의 폐쇄가 동시에

46) 이창우(1980), 한·일 양국어 대조 음성학, 한마음사, pp.131 - 132.

황찬호, 이계순의 2명(1993), 한·일어 대조 분석,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명지출판사, p.44. 황찬호의 3명(1993)에서는 모음 앞에서 혹은 모라음소 /N -/, /Q -/ 뒤에서는 한국어 경음 [p'] [t'] [k']으로 발음하고 있다.

개방 파열하는 무성 무기음 [p'], [t'], [k']로 발화됨을 알 수 있다.

유성화음 (voiced sound) / b / 「バ행」은 양순 유성 폐쇄음으로 어두, 어중의 /b/는 유성 유기음으로 日本 關西 以西 모든 방언의 화자는 「フ」를 [ɸ]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하게 발음 되는 예 가운데 「危ない」는 [aβʷnai]와 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⁴⁷⁾

/t/ 「タ, テ, ト」의 치경 무성 폐쇄음은 어두에서 무성 유기음 [th]음으로, [a, e, o] 모음 앞에서는 평음 [t] 음으로, /N - /, /Q - /의 음 뒤에서는 무성 무기음 [t']으로 발화되고 있다.

(2)かんぱん(甲板)	[kampaɸ]	을	[kanpaɸ], [gaɸpaɸ], [k'anp'aɸ], [k'aɸpaɸ], [gamp'aɸ], [khamn'aɸ]
しんぴ(神秘)	[simpi]	를	[sinpi], [simpi], [simp'i], [sinp'i]
べらべら	[perapera]		[p'erap'era]
パン	[paɸ]		[p'aɸ]
パパ	[papa]		[p'ap'a]

먼저, (2)와 같이 무성음 [p]가撥音 (はねる音) 「N - 」 뒤에서는 약한 기음이 동반된 [p']음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피실험자 10명 가운데 7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p']음 앞의撥音 「N」은自由異音⁴⁸⁾ [m, n, ɸ]의 발음으로 발화되고 있다. 이 경우의 사례는 차후에 서술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창우(1980:131)에서 [ph]⁴⁹⁾는 어두에서만 나타나는 약한 소리문

47) 服部四郎(1984), 音聲學, 岩波書店, p.71.

48) 自由異音이란, 동일 음소로 복수개의異音이 같은 환경에서 대립하지 않는 경우를異音이라 한다.

49) 일본어 氣音 [ph]의 [h] 기호는 氣音이 약하다는 표시이다. [th], [kh]도 마찬가지이다.

같이 소리 [h]가 곁들여 무의식적으로 거센 기음 소리로 나타내고 있다. 제주 방언을 구사하는 일본어 학습자들을 실험 조사한 결과, 반복되는 단어의 예 중 「べらべら」는 [p'era'p'era]로, 「パン」은 [p'aŋ]으로, 「パパ」는 [p'ap'a] 로 어두 및 어중에서 10명 모두 다 한국어의 硬音 [p']와 유사하게 발화하는 경향이 많다.⁵⁰⁾

또, 모음 사이에서의 자음 /p/는 앞의 모음의 영향으로 平音 [p]로 무성 무기음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 방언 구사 학습자에게는 들을 수 없는 음이다. 다음은 유성음 [b]음의 사례를 들고 어떤 발음으로 구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かんばん (看板)[kambaŋ]을	[kanbaŋ], [kambaŋ], [khambaŋ], [gambaŋ],[kambaŋ],[kaŋbaŋ]
しんび (審美)[simbi]을	[sinbi]로
べらべら	[berabera]
ばん (晩)[baŋ]	
パパ	[baba]

(3)의 용례에서는 어두, 어중의 유성 폐쇄음 [b]음에 대해 살펴 보면, 이 음은 폐에서의 날숨에 대해 이음부에서 목청의 진동이 있고, 소리문이 소리를 내는 조음 위치로 좁아지고 있으므로, [p]음의 경우보다 입안의 기압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고 두 입술의 단음도 [p]음과 같이 힘을 들이지 않는다.⁵¹⁾

어중의 유성폐쇄음 [b]는 피실험자 10명 전부 똑같이 평음 [b]로 발화되

50) 이는 앞에서 언급한 황찬호 외 3명 (1993:44)의하면 이것은 모음 앞 또는 모라 음소 뒤에서 나는 한국어의 된소리인 것이다.

51) 服部四郎(1984), 앞의 책, pp.69 - 70.

고 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 발음되는 모라음소 [N]음은 여러 가지 변이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이 음은 ㅂ音 [b]로 소리를 내고 있다.⁵²⁾ 이 음은 한국어에서 무성자음인 「ㅍ」[p]가 어중에 오면 유성화하기 쉽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 (4) たいがく (退學) [taigak^u]를 [thaigak^u], [t'aigak^u], [daigak^u],
[daik'ak'u]
- てんき (天氣) [te^ŋki]를 [thenk'i], [the^ŋk'i], [t'e^ŋk'i],
[t'enk'i], [tenk'i]
- とういつ (統一) [tooits^u]을 [tho^uits^u], [do^uits^u], [touis^u],
[t'ouis^u]
- とうきょう(東京) [tookyoo]를 [tho^uk'yo^u], [do^uk'yo^u], [toku^u'yo^u],
[to^ugyo^u]
- ごうとう (強盜) [gootoo]를 [gout'ou], [goutho^u], [gothou],
[got'o^u]
- せいと (生徒) [seeto]를 [seet'o], [seetho], [seit'o]
- たけ (竹) [take]를 [dak'e], [thake], [t'ak'e],
[dakhe], [t'akhe], [thage]

(4)의 용례가 위와 같이 발음되고 있다. 먼저, /t/ 「タ, テ, ト」의 치경파열음은 어두에서 [tha, the, tho]로 폐의 날숨에 대해서 이음부에서 목청의 진동이 없고, 혀끝이 잇몸에 붙어서 단음의 상태에서 날숨을 뿜어낼 때, 심한

52) 일본 關西以西 지방 방언에서 「アバク」[abak^u] -> [aβak^u]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도, 갈비 [galβi], 부부 [buβu]로 발화하는 예가 있다. 일본어에서는 [b]음은 한 음소로 보지만, 한국어에서는 이음율 /p/의 변이음으로 유성음 사이에서만 볼 수가 있다.

터짐의 지지컵 소리 (燥音)가 나며, 터진 후 근육은 긴장하고 소리문이 열린 채 날숨이 소리문을 통과할 때 약한 기음 [h]가 곁들여 무의식적으로 기음이 되는 소리이다. 이 소리는 / -a, -e, -o /앞에서만 나타난다.⁵³⁾

제주 방언 구사 일본어 학습자에게 어두의 무성 무기음 [t]를 발음하도록 했을 때 예를 들어, タイガク [taigak^u]를 [thaigak^u]로 발화하는 대상이 10명 중 6명으로 많았고, 다음은 어두에 한국어의 경음인 된소리의 [t'aigak^u]로 혹은 清音과 濁音의 변별력을 갖는 음 [daigak^u]로 발음하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다. 또, テンキ [teŋki]도 역시 어두의 [t]음이 [theŋk'i]로 발화하는 학습자가 대부분이었다.

어중에서의 음은 앞에서 서술했던 [p]음과 마찬가지로 [t]음도 역시 된소리 [t']음으로 발음하여 소리내는 학습자가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다.

(5) だいがく	(大學)	[daigak ^u]	
でんき	(電氣)	[deŋki]	[denk'i]
どういつ	(同一)	[dooits ^u]	[do ^u itsu], [douitsu]
どうきょう	(同郷)	[dookyoo]	[do ^u k'yo ^u], [do ^u gyou], [to ^u k'yo ^u], [doukyou]
ごうどう	(合同)	[goodoo]	[gout'ou], [go ^u do ^u], [godou], [godo ^u]
せいど	(制度)	[seedo]	[seit'o], [seido], [seeto]
だけ		[dake]	[dak'e], [dakhe], [dage]

일본어의 유성음 /d/가 어두에 올 때 한국인에게 무성음 /t/와 구별하기 어려워 무성음으로 발음하기 쉽다. 또한, 어중에서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

53) 이창우 (1980), 앞의 책, pp.133 - 134.

별도 어려운 것이다. 이 /d/음소 뒤에는 모음 / a, e, o /가 온다. (5)의 용례에서 어두, 어중에 오는 유성음 [d]에 대해 최소대립어(minimal pair)에 의해 서로 변별적인 단어의 예를 들어 발화하도록 발음을 시도 했기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유성음은 대부분 올바르게 발음하고 있다.

그러나, 한 음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음은 불안정한 발음을 내고 있다. 동경 방언에서는 발음 편의를 위해서 중모음의 경우 장모음으로 처리하여 발음하고 있다. 외래어도 마찬가지로 「game」 “ゲ - ム”를 [geem^u], 「tape」 “テ - プ”를 [teep^u], 「date」 “デ - ト”를 [deeto]와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다. “どういつ(同一)”[dooits^u]를 발화하는데 있어, 피실험자 10명 중 8명이 [do^uits^u]로, “せいど(制度)”[seedo]를 [seido]로 오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음 뒤에 「う」가 長音を 나타낼 때 [oo]대신 철자법은 [u]로, 또한 [ee]를 [ei]로 대치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어중에서의 유성음 [d]가 무성 기음인 [t']로 발음하는 학습자가 몇 몇 있었다. “だけ”[dake]의 경우 어두의 유성음 [d]음은 바르게 구사하고 있지만, 어중의 무성음 [k]가 [k'], [kh], [g]으로 각각 발음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 (6)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6) かい	(貝)	[kai]	[k'ai], [khai]
きねん	(記念)	[kine ^ŋ]	[k'inen], [k'ine ^ŋ], [khinne ^ŋ], [gine ^ŋ]
くち	(口)	[kwtʃi]	[kwc'i], [gwc'i]
けんいん	(検印)	[ke ^ŋ i ^ŋ]	[k'e ^ŋ i ^ŋ], [ge ^ŋ i ^ŋ], [geni ^ŋ], [khe ^ŋ i ^ŋ]
こご	(古語)	[kogo]	[kougou], [khogou], [kougou], [k'ok'ou]
かき	(柿)	[kaki]	[khak'i], [k'ak'i], [gak'i]

(6)의 용례에서도 (2)와 (4)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결과로 발음해 본 즉, 어두에서 [k , k' , kh] 변이음으로 또 어중에서 유성음, 무성음의 구별이 정확하지 못한 [k , g] 로 발화하는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k/음소가 어두에서 격음 [kh]음으로, 어중에서는 경음 [k']음으로 발화하는 것이 많은데, 그리고 (6)의 예에서 어두에 오는 “ かい(貝) ” [kai]가 [k'ai]로 “かき(柿)” [kaki]를 [k'ak'i]로 경음의 “ㄱ”[k']로 발화하기도 한다. “ここ(古語)” [kogo]는 “こうこ” [kowgo] 혹은, “こうごう”[kowgow]와 같이 모음 / u /를 길게 소리내어 발음하는 학생도 몇 명 있었다.

(7) がい(害)	[gai]	[gai]
ぎねん(疑念)	[gineŋ]	[kineŋ], [khineŋ]
ぐち(愚痴)	[gʷtʃi]	[gʷc'i], [gʷtʃi], [gutʃi]
げんいん(原因)	[geŋiŋ]	[k'eŋiŋ], [geniŋ]
ごご(午後)	[gogo]	[gougo], [gok'o]
かぎ(鍵)	[kagi]	[kagi], [gak'i], [khagi], [khak'i]

(7)에서 어두의 유성음 [g]음은 피실험자 10명 중 8명이 올바르게 구사하고 있는데 어중에서 예를 들면 ‘かぎ’(鍵)[kagi]⁵⁴⁾를 [gak'i]로 발음하는 학생은 3명이며, 한명은 ‘かき’(柿)[khak'i]로 소리내어 발화하였다.

(2) - (7)의 자료는 제주 방언 구사 제 2 언어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을 가지는 무성음 [p,t,k]와 유성음 [b,d,g]에

54) 일본어의 ‘ゲタ’[geta]는 한국어 음운체계가 유성음이 어두에 오지않기때문에 ‘ケダ’[keda]와 같이 발음하는 예가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의 경우, “고기”(きかな)[kogi]에서 [k]와 [g]는 다른 음성이지만, 같은 음소로 다루어지므로 같은 ‘ㄱ’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 사례들을 들어 발음하도록 하여 얻은 분석 결과이다. 어두에서는 무성음을 대부분 기음이 동반된 [ph,th,kh]음으로 발화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 방언의 특색 중 어두에서의 격음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 예로 딸기 > 탈, 고사 > 묘사 를 들 수 있다. 어중에서 무성음은 대부분이 경음의 [p',t',k']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 방언에서 효과 > 효파, 근사값 > 근사값으로 발화할 때 어중의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한국어의 [ㄱ,ㄷ,ㅂ]등으로 무성음을 혼용한다면, 일본어에서의 특수음소인 促音과의 구별이 어려워지므로 이를 피하고 정확한 음가로 발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두의 유성음 및 어중의 무성음의 발음 구분이 어려워 일본어 음에 대응하는 것이 한국어의 음으로 대처하여 오용하는 경우를 (1)에서 (7)까지 살펴 보았다.

(8) ひざ	(膝)	[çidza]	[çidza], [hidʰa], [hidʰ'a]
ざせき	(座席)	[dzaseki]	[dzasek'i], [dzasenk'i]
ちず	(地圖)	[tʃidzũ]	[c'idzũ], [c'isũ], [c'izi]
なぞ	(謎)	[nadzo]	[nadz'o]
ぜんねん	(前年)	[dzenneŋ]	[dzeŋneŋ], [senneŋ], [dzenniŋ]

(8)의 예는 일본어의 「ザ, ズ, ゼ, ヅ」[dza, dzũ, dze, dzo]에 대한 발음이다. /z/[dz]는 [z]가 아니고, 같은 조음점의 단음 소리 [d]에서 [z]로 이어가는 터짐 같이 소리 파찰음계이다. 일본의 關西 지방 방언에서도 아무렇게나 소리내는 경우, 「サザエ」를 [sazae]와 같이 어중의 모음사이에서 거의 터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같이 소리는 좁힘이 보통 같이 소리 보다 좁게 시작하여 차차 넓어가는 점에서 약한 터짐 같이 소리라고 해도 좋다.⁵⁵⁾

55) 服部四郎(1984), 앞의 책, p.150.

이 [dz]는 / -a, -e, -o, -u /의 앞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이 음은 ‘ツ’ [ts]의 유성음인데 제주 방언 구사자들이 ‘히즈’ [çidza]를 발음할 때, [hidʰa]로 발화하는 경우가 8명, 한명은 [hidʰ'a]와 같이, 다른 한명은 [dza]를 [z'a]로, ‘나즈’[nadzo]역시, ‘즈’를 경음의 [z'o]로 발음하고 있다.

‘ちず’(地圖)[tʰids̃]를 발음할 때 [c'idz̃], [c'is̃], [c'izi]와 같이 ‘즈’[ds̃]를 발음하는데 [s̃]와 [zi], [z̃]로 오용하여 발음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어의 평안 방언은 대체적으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비슷한 위치에서 [dz], [ts]음이 조음된다는 것이다.

(9) じこく(時刻)[dʰikok̃]를 [sigok̃], [ʰik'ok'̃], [sigok̃]

[ʰhikok̃], [ʰikhok̃]

てじな(手品)[tedʰina]를 [teʰina], [thedʰina], [dedʰina]

おやじ(親父)[oyadʰi]를 [oyaʰi], [oyasi], [oyaʰzi]

(9)의 용례는 일본어의 ‘じ’[dʰi]음이 어두와 어중에서 / -i, -y /의 앞에서만 나타나는 치경 경구개 파찰음으로서 이 [dʰ]음은 [d]의 닫음 소리에서 [ʰ]의 같이 소리로 넘어가는 원리는 (8)의 [dz]음과 같다. 여기서 ‘じこく’[dʰikok̃], ‘おやじ’[oyadʰi]의 예에서 일본어의 [dʰ] 발음이 어려워 [s]음으로 대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발음은 한국어에서도 [i], [y] 앞에서 구개화되기 때문에 조음 방법과 그 위치를 설명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10) すいか(水火)[s̃ũika]를 [s̃ũik'a], [s'ũik'a], [s̃ũikha]

すき [s̃ũki]를 [s̃ũk'i]

バス [bas̃] [bas'ũ], [pas̃]

(10)에서는 무성 치경 마찰음 [s]음이 한국어 제주 방언에서도 '△'의 음가로 존재해 있는 예가 있는데, 아△이 > 아△이 > 아시 [aʃi]⁵⁶⁾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두의 'す'[s̥]음은 대부분 바르게 발음하고 있으나 어중에서는 [s'ɰ]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バス'를 'バツス'로 오용될 수 있다. 이 소리는 /-a, -e, -o / 앞에서만 나타나며, /-i, -y / 앞에서는 [s]음이 [ʃ]음으로 발음된다. 이 음은 服部四郎(1984:87)에서는 「앞 혀바닥의 앞 쪽이 잇몸 및 그 뒷쪽에 대해서 폭이 비교적 넓고 길이가 비교적 짧고 좁음을 만들어 앞니 직 후에 조그마한 빈구멍(空洞)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또 [ʃa,ʃu,ʃo]의 자음은 입술이 위아래로 벌어져 좌우 양쪽으로 잡아 끌리어 조음점은 약간 뒤쪽 편이고, 구개화의 정도는 약간 높다.」고 말하고 있다.

(11) つか (追加)	[ts̥ika]	[tʃiik'a], [ts̥ik'a], [ts̥ikha]
つき (月)	[ts̥iki]	[s̥ik'i], [ts̥ik'i], [tʃik'i], [ts̥ikhi]
ばつ (罰)	[bats̥]	[bats̥], [batts'ɰ]
つい	[ts̥i]	[s̥i], [tʃ'ii]
つかう (使う)	[ts̥ikaw]	[tʃ'ik'aw], [ts̥ik'aw], [s̥ikaw]
つり (釣り)	[ts̥uri]	[tʃiri], [s̥uri], [z̥uri]
つち (土)	[ts̥tʃi]	[tʃitʃi]
くつ (靴)	[kʷts̥]	[gʷts̥], [gʷtʃi]

일본어의 夕行은 모음 [a,e,o] 앞에서는 무성 치경 [t]음으로 모음 [i] 앞에서 무성 경구개 치경 파찰음 [tʃ], 모음 [ɰ] 앞에서 무성 파찰음 [ts]로 /t/음소는 相補的 分布⁵⁷⁾를 이루어 음성적으로 유사한 음성이 단일 음소로 보

56) /m̥s̥im/ (心, 마음), /tʃ̥ɰdʃi/ (罰, 벌)과 같은 예도 마찬가지다.

는 異音 [t,tʃ,ts]들이다.

(11)의 자료에서는 ‘つ’[ts̥]의 발음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한다. 이 음은 혀끝은 윗니와 치조의 뒷부분에 접촉하고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림과 동시에 마찰음 [s]를 동반하면서 내는 무성 파찰음이다. 한국어의 자음 음소 중, 이 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ㅈ’[c’], 또는 [s’]로 대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어두나 어중에서 이 음은 구개화된 치경 파찰음 [tʃi]나 치조 앞 부분과 치경 마찰음 [s’i] 조음점이 연구개 쪽으로 옮겨 발음하기 쉬운 쪽으로 발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松田さん!’ 이라고 부를 때 중년층과 노년층의 한국인 학습자들은 ‘마쓰다’, ‘마쯔다’라고 발화한다.⁵⁸⁾

(12) ちい (地位)	[tʃii]를	[tʃ’ii], [ts’ii]
ちかう(誓う)	[tʃikḁ]를	[tʃ’ik’ḁ], [ts̥k’ḁ], [c’ik’ḁ], [z’ikḁ]
ちり	[tʃiri]를	[c’iri], [ziri]
ちち (父)	[tʃitʃi]를	[c’ic’i], [tʃic’i]
くち (口)	[kʷtʃi]를	[kʷc’i], [gʷtʃi]

일본어의 ‘ち’ [tʃi]는 무성 경구개 치경 파찰음으로 (12)의 용례에서는 어두와 어중에서의 그 발음은 무성 무기음[tʃ] 혹은, 한국어의 경음 ‘ㅈ’ [c’]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57) 하나의 음소에 속하는 이음의 분포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이음을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이것을 이루는 이음을 조건이음이라 한다. ‘조건’이란 ‘환경에 따라 조건지어진다.’는 의미이다.

58) 이것은 ‘ツシマ’를 ‘쓰시마’, ‘タカマツ’를 ‘타까마쓰’로 표기하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8) - (12)까지는 일본어의 마찰음계 /s, ts, tʃ, dz, dʒ/에 대한 발음 용례를 들어 제주 방언 구사자에게 발화하도록 했을 때, 이 마찰음계 /s/음은 어중에서 한국어 짜[c'] 혹은 [s']로 대치하여 促音의 발음과 유사하게 하고 있다. 어두에서는 '△'의 음가가 잔재해 있어 /mʷsɪl/(묵술,村), /kʷsɪl/(구술,秋)등에서 볼 수 있는 [s]음이 보존된 방언이다.

/dz/음은 'つ'[ts]음의 유성음으로 어두·어중에서 발음하기 쉬운 음 [c'], [s], [dʒ]음으로 대치하고 있다. 구개화된 /tʃ/음은 어두·어중에서 한국어의 경음 무성 무기음 [tʃ'] 혹은 [c'i]로 하고 있다. /dʒ/음은 어두·어중에서 [s] 혹은 [dʒh]로 발음되고 있다. /ts/음은 [tʃ'] 혹은 [s'ㅈ]로 조음점을 연구개 쪽으로 옮겨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 / tʃ, dʒ / 는 /i/, /y/ 모음 앞에서 구개화된 /ts, dz/의 條件 異音이므로 서로 혼용하여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 s, z /등도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 -(7)에서와 같이 어두에서 자음은 격음화하는 현상⁵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중에서는 경음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⁶⁰⁾

(13) かがみ (鏡) [kaɕami]를 [gaɕami], [gak'ami], [khak'ami],
[khagami]

かいが(繪畫) [kaiɕa] [kaik'a], [gaik'a], [khaik'a],
[k'aik'a], [kaiga], [khaiga], [kaiɕa]

59) 이창우(1984), 앞의 책, pp.138 - 147.

어두에서는 기음이 있는 격음[h], 어중의 促音이나 撥音인 경우 기음이 없는 경음 ['] 기호로 나타나나, 어중에서는 平音으로 한국어의 유사한 음으로 대치하고 있다.

60) 한국어의 경우 경음화하는 경향은 무성자음에서 t > k > c > s > p 순으로 일어난다. 권혜숙(1993), 「일본어의 연탁과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 동국대 석사논문, p.47.

しごと (仕事)[sifoto]	[sigot' o], [sik' ot' o]
ひげ	[çife] [hik' e], [hike], [hige]
しょうがっこう(小學校)	[syooŋakoo]를 [syooŋak' om], [syougak' om], [syogak' o], [syogak' ou], [syoak' om]

일본어의 「ガ행」 /g/는 어중의 자음으로, 「가행」 /ga/의 異音으로 보는 각 학자의 說⁶¹⁾도 있지만, 본 고에서는 두개의 음소로 보고 가행 비음의 발음을 시도해 보았다.

(13)의 자료에서 「ガ」[g]는 뒤 혀바닥과 여린 입천장의 닫음과 아울러 여린 입천장이 늘어져, 소리길이 콧속으로 이어지며 소리가 콧구멍으로 나오는 것이며, 이 음은 어중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피실험자들은 거의 대부분 비음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본어 교육에 있어 /g/음을 「가」[ga]라고 처음에 학습한 결과일 것이다. 서로의 음이 유의적 차이가 있는 음이 아니므로 별다른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14) かんあん(勘案)[ka [̃] aŋ]를	[ganaŋ], [ka [̃] aŋ], [gaŋaŋ], [khŋaŋ], [ga [̃] aŋ]
いちまんえん(一万円)[itʃimae [̃] ŋ]를	[itʃimaŋeŋ], [itʃimaŋeŋ], [itʃman [̃] ŋ]
れんあい(戀愛)[re [̃] ai]를	[renai], [reŋai], [re [̃] ai]
ほんや(本屋)[ho [̃] ya]를	[hoŋya]

61) 「가」와 구분짓기 위해서 「가」는 비음화한 음으로서 나타낸다. 일본 동경 방언에서 /g/「가」, /ŋ/「가」로 설정하는 학자의 대표자는 服部四郎(1984)과 有坂秀世이다. 服部四郎(1964), 言語學の方法, 岩波書店, p.337.

えんえい(遠泳)[ẽẽ:]를

[ẽẽei], [ẽf̃ei]

일본어 모음 앞의 「ン」은 후속 모음, 반모음과 같이 그것에 가까운 비모음이 되는데 (14)의 용례가 바로 그것이다. 후속 모음 [i,y,a,e,ɰ,o]가 올 때 「ン」은 [ĩ, ẽ, õ, ǎ, ɰ]와 같이 비모음으로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비모음을 발화하는데는 굉장한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방언의 피실험자들은 발음 「ン」의 대표음 [ɰ]으로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15) きく	(菊) [k̃k̃ɰ]	[kik'ɰ]
くさ	(草) [k̃ɰsa]	[khɰsa], [gɰsa]
ひかり	(光) [ç̃k̃ari]	[hik'ari], [hikhari]
あります	[arimas̃ɰ]	[arimasu]
いきます	[ikimas̃ɰ]	[ik'imas̃ɰ]
こころ	(心) [k̃okoro]	[gok'oro]

일본어 동경 방언의 가장 큰 특색으로 무성자음 사이에 문말, 또는 어두 전후의 영향을 받고 성대 진동을 하지 않거나 약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母音의 無聲化라고 한다. 이 현상은 액센트와 관련있고, 본래 유성음인 모음 안에서 주로 액센트의 핵이 없는 拍 [i]와 [ɰ]가 무성화된다. 그런데, 무성화할 곳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유성화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15)의 용례에서 [arimasu]나 [ikimas̃ɰ]의 경우, 문말에서 피실험자 10명 모두 「す」[s̃ɰ]를 유성음으로 소리내어 발음하고 있고, 무성자음을 유성음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16) おへそ (お臍) [o ^h eso]	를	[ohes' o]
へた (下手) [heta]		[heda], [het' a]
しはい (支配) [si ^h ai]		
たいほ (逮捕) [tai ^h o]		[dai ^h o], [thai ^h o], [t'ai ^h o]
ひえ (冷え) [çie]		[hie]
ひと (人) [çito]		[sit' o], [hit' o]
ホテル	[hoter ^w]	[hot' ero], [hot' er ^w], [hother ^w]

일본어 「ハ행」에 있어 모음 [-a, -e, -o] 앞에서 [h]음으로 이 음은 폐에서 입안을 통하여 나는 날숨에 대해 소리문이 좁음을 만들어 같이될 하는 무성 유기 성문 마찰음이다. 이 음이 어중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화한 성문 마찰음 [h]⁶²⁾로 나타난다. 그리고, [-u]모음 앞에서는 무성 유기 양순 마찰음 [ɸ]가 온다. [-i]모음 앞에서는 무성 유기 경구개 마찰음 [ç]가 된다. 위 (16)의 예에서 [-a, -e, -o] 앞의 [h]음은 어두에서 올바르게 발화되고 있다. 그런데 [-i]모음 앞에 있는 무성 유기 성문 마찰음 /h/은 [ç]나 [h], [s]⁶³⁾로 오용하고 있다.

(17) ラグビー [ragubi:]		[rakubi:]
レントゲン [rentoge ^h]		[rent' oge ^h], [rent ^h ogen], [rent' oke ^h]
さんりん (山林) [sanri ^h]		[sanni ^h], [sa ^h ni ^h], [sa ^h ri ^h]
くんれん (訓練) [k ^w nre ^h]		[k ^w nne ^h], [ku ^h ne ^h], [k ^w re ^h]

62) /gohaN/ (御飯) [go^haN], /goheNci/ (御回答) [go^hend^hi]

63) 제주 방언에서 성대와 가까운 후음 /ㅎ/음이 탈락되는 것이었다.

힘 > 심, 혀 > 세, 아흙 > 아웁

일본어 /R/음은 유성 치경 流音으로 한국어의 경우, /r/음은 어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음을 발화할 때, [n]음으로 발음하거나, 자음없이 모음 부터 소리를 내어 버린다. 「ラグビー」는 「ナグビー」로, 「レントゲン」은 「エントゲン」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본어의 /R/음을 한국어의 /l/로 대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는 변별적이다. 예를 들면, 「山林」이 [sallin], 「訓練」을 [kullen], 「寒冷」을 [hallen]과 같이 발음한다.⁶⁴⁾ 이 방언을 구사하는 이들은 어두에서 /r/음은 정확히 구사하고 있으나, 어중에서 /n/음으로 발화하고 있다.

- (18) おばさん (叔母さん) : おばあさん(御祖母さん)
 いえ (家) : いいえ
 よじ (4時) : ようじ (用事)
 くき (莖) : くうき (空氣)
 いっしゅ (一種) : いっしゅう(一周)
 おく : おおく (多く)
 ここ : こうこう (高校)
 くつ (靴) : くつう (苦痛)

일본어의 短音과 長音의 최소대립어에 의해 그 음을 구분지어 모음의 장·단에 대한 인식을 시켜 발화하도록 하였다. 한국어의 모음의 장단의 음운론적 대립은 단어의 제 1음절에서만 존재할 뿐만아니라, 표기상 나타나지 않아 일본어 長音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많은 오류를 나타낸다. 이 방언에서 정승철(1988)에 의하면 표현적, 정서적 기능이 강한 것을 보면 長音으로 인정할 듯하지만,⁶⁵⁾ 이 방언에서도 현재 장·단음의 시차적 기능을

64) 文化廳(1988), 앞의 책, p.194.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18)의 용례에서 おばあさん(御祖母さん)[oba:saŋ]을 [obasaŋ]으로, くうき[kuuŋki]를 [gʷuuŋk'i]혹은 [kʷuuŋk'i]로 발음하며, [kʷki]로 단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いっしゅう[iss'yuu]를 [iss'yʷ], [iss'yo]로, こうこう[kookoo]를 [kooŋkoo]혹은 [kokoo], [kooko], [gook'oo]로 장모음의 표기에 있어 철자법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19) かつそう (滑走)[kass'oo]을	[gass'oo], [kass'oo], [kassjoo]
さっか (作家)[sakk'a]	[sakk'i]
しっぱい (失敗)[sipp'ai]	[sipp'ai]
だったい (脱退)[dattai]	[datt'ai], [tatt'ai]

특수음소 促音 /Q/의 뒤에 오는 소리는 모두 된소리로 소리난다. /Q/의 음은 후속 자음에 동화⁶⁶⁾되기 때문에 발음은 그 만큼 문제는 아니지만, 拍의 개념을 파악시켜야 한다. 또, 이 음은 어두·어말에 오지 않고 어중에만 오는데, 이 방언에서는 促音が 없는 「かそう」[kas'oo]를 발음할 때 어중에서 /s/음이 경음인 /s'/음으로 소리내어 서로 혼용하며 발화하는 것이다.

일본어의 /Qt, Qp, Qk, Qs, Qc/의 발음은 [tt, pp, kk, ss, cc]로 경음화된다. 평음과 促音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다.

65) 곱다(隠); 곱:다(麗), 해:양하다 (하양다), 푸근:하다 (푸근하다), 제:발 (제발)
정승철(1988), 「제주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제 84호』, 국어연구회, p.16.

66) つ /Q/ -> $\left\{ \begin{array}{l} [p'] / \text{_____} [p] \\ [t'] / \text{_____} [t, c] \\ [k'] / \text{_____} [k] \\ [s'] / \text{_____} [s] \end{array} \right.$

(20) かんそう (感想)[kansoo]을	[kasyo ^ㄹ], [kansyo ^ㄹ], [kanso ^ㄹ]
さんか (参加)[saŋka]	[saŋk'a]
にんき (人氣)[niŋki]	[niŋk'i], [niŋk'i]
しんぱい (心配)[simpai]	[simp'ai]
だんたい (團體)[dantai]	[dand'ai], [daŋt'ai], [dant'ai]

일본어의 특수음소 「ん」/N/은 후속 자음과 같은 자질의 조음점을 가지는 비음으로 실현한다. 어말에 오는 비음은 구개수 비음 [N]에 한정되고 1 拍으로 셀 수 있다. 이 음은 후속자음의 성질에 의해 [m,n,ŋ]이라는 異音⁶⁷⁾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런 현상을 中和라고 한다. 中和의 위치에서는 음소 /N/은 조음점에 의해 변별기능을 상실하므로 「鼻音」이라는 특징만을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언에서는 일본어와 같이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습관이 없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 한가[haŋga], 혼비[hombi], 한문[hammun]과 같이 자음동화하려는 현상이 있으므로 발음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18)(19)(20)에서는 특수 모라음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음들은 일본어 음운의 특색인 만큼 지도가 절실히 요망된다. /R/, /Q/, /N/는 모라음소로 앞 음절과 연결되는 형으로 이용되지만 하나의 리듬의 단위로서 독립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67) ん /N/ - > $\left\{ \begin{array}{l} m / \text{---} p, b, m \\ n / \text{---} t, d, s, z, c, j \\ \text{ŋ} / \text{---} k, g, \# \end{array} \right.$

환경에 의한 조건이음 [m,n,ŋ]은 그 자체로 음절을 이루며 발음도 달라진다. 이외에도 앞에 있는 모음이 비음화되는 경우가 있다. (예, にんき[niŋki])

2.5.2. 경상 방언 구사 일본어 학습자

1. 모음 음소

현대 경상 방언의 모음은 / a, i,ɔ, u,ɛ ,o / 6개이다. 모음 /ɔ/는 /ə/와 /ʉ/의 구별이 되지않아 보통 /ə/로 발음된다. 또, 모음 /ɛ/는 /e/와 /ɛ/의 구별이 되지않고 있다. 이 방언은 특히 [ɨ]와 [ɐ] 모음의 구별을 하지 못해서 하늘(天)를 /hanɐl/, 오늘(今日)를 /onɐl/, 마늘을 /manɐl/ 로 [ɨ] 음을 [ɐ]로 대체하여 발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상 방언을 모어로 하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일본어 모음의 발음 실태 조사⁶⁸⁾를 해 본다.

(21) うま (馬)	[ɯm ^a] 을	[uma]로
うめ (梅)	[ɯme]	[ume]
あい (愛)	[ai]	[ai], [ai:]
あう (會う)	[au]	[au]
かえ (買え)	[kae]	[khae]
かお (顔)	[kao]	[khao]
ふうふ	[ɸɯɯɸɯ]	[ɸuuɸu], [ɸuɸu]
ふうふう	[ɸɯɯɸɯɯ]	[ɸuuɸu], [ɸuɸuu]

먼저, 처음 어두의 일본어의 [ɯ]모음은 전원이 원순의 [u]모음으로 발화하였는데, 이 음의 조음 방법과 그 위치를 설명하고 난 후 발음을 시도했을 때 10명 모두 평순의 [ɯ]모음으로 발음하였다. 어중이나 어말에서는 다시 원순의 모음 [u]로 구사하고 있다. 그리고, 「あい」를 발음 할 때 [i]모음이

68) 발음실태 조사내용은 제주 방언의 조사 사례 내용과 같다.

장음 [i:]로 처리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다.

2. 자음 음소

모음이나, 개음사이의 [g], [b], [s]음이 약화 탈락하는 언어현상을 피하여 이들 자음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이 방언의 특색이다. 예를 들면, /molge/ (砂), /pagu/ (岩), /ipsul/이 /ipsuguri/로 [g]음이 보존된 방언이다. 또, [b]음이 보존되어 /s'ipta/(苦味)는 [s'ibt'a], [tʃhap-ta](寒)는 [tʃhapt'a]와 같이 /p/음소가 [b]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s]음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구개음화 현상은 국어가 변천해 가는 하나의 큰 경향이요,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이 방언의 특색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서울 방언에서 구개음화하지 않는 낱말까지 구개화하는 강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 強音化 현상도 이 방언에선 다른 지방 보다도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pəngɛ/(電光), /kərop-ta/(苦悶)를 /korop-ta/등을 들 수 있다.

(22) かんぱん (甲板)	[kampaŋ]을	[khampan], [khamp'aŋ]
しんぴ (神秘)	[simpi]를	[simp'i]
ぺらぺら	[perapera]	[p'erap'era], [parapara]
パン	[paŋ]	[p'aŋ]
パパ	[papa]	[p'ap'a]

일본어 ぱ行 [pa,pi,pu,pe,po]의 발음을 구사하는데, 어두에 오는 [pa], [pe]는 제주 방언과 마찬가지로 경음의 [p'a], [p'e]로 발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부 방언⁶⁹⁾에서 가지는 통시적 음운 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 어두 경음

69) 경상, 제주를 포함한 방언 지역을 말한다.

てんき	(天氣)[teŋki]를	[theŋk'i], [t'eŋk'i]
とういつ	(統一)[tooits̄]을	[thouitsu]
とうきょう	(東京)[tookyoo]를	[thoukhyou]
ごうとう	(強盜)[gootoo]를	[gouthou], [gothou], [kouthou]
せいと	(生徒)[seeto]를	[seitho]
たけ	(竹) [take]를	[thake], [thage]

(24)의 예에서 치경 폐쇄음 [t]에 대한 발음 분석이다. 어두에서 기음이 약간 동반된 [th]로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a,-e,-o] 모음 앞에서 나는 거센 소리로 제주 방언보다 기음이 있는 소리가 더 많이 구사되고 있다. 그런데, 어중에서도 역시 같은 경향을 있는데, 「せいと」 [seeto]를 [seitho], 「ごうとう」(強盜) [gootoo]를 [gouthou]와 같이 기음이 결들인 음으로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무성 자음이 유성화된다는 것을 의식한 나머지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동경 방언에서 발음 편의를 위한 중모음의 장음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발음 연습이 요구된다.

(25) だいがく	(大學)[daigaku]	[daigaku]
でんき	(電氣)[deŋki]	[deŋk'i], [d'eŋk'i]
どういつ	(同一)[dooits̄]	[douitsu], [douits̄]
どうきょう	(同郷)[dookyoo]	[doukyou], [doukyou], [toŋk'yoŋ], [doukyou]
ごうどう	(合同)[goodoo]	[goudou], [godou]
せいど	(制度)[seedo]	[seido]

(27) がい(害)	[gai]를	[gai]
ぎねん(疑念)	[gineŋ]	[gineŋ]
ぐち (愚痴)	[gʷtʃi]	[gʷci], [gʷtʃi]
げんいん(原因)	[geŋiŋ]	[geiŋ], [geniŋ], [geŋiŋ]
ごご(午後)	[gogo]	[gogo]
かぎ (鍵)	[kagi]	[khagi], [khak'i]

(26)에 대한 유성음인 [g]음에 대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발음 분석이다. (26)의 사례와 최소대립어에 의해 구분을 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26)의 예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와서 무성음 [k]와 유성음 [g]의 변별적인 의미 분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2) - (27)의 자료는 경상 방언을 구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성음 [p,t,k]와 유성음 [b,d,g]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서로 변별적인 발음을 구사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어두에서는 제주 방언 보다 더 거센소리가 동반된 격음 [th, kh] 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발화한다. 그러나 [p]은 경음인 [p']음으로 나타났다. 어중에 오는 무성음도 경음의 된소리 보다는 거센소리로 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성음 중 [b]음은 현재 이 방언에 보존되어 있는 음으로 중간 [p]음이 모음이나 유성 자음사이에서 /p/음이 약화 탈락되지 않고 이 지역에서 /t'alp^ɛki/ [t'alb^ɛgi](두레박) 등과 같이 고어 형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어두의 [p]음은 경음의 [p']음으로 나타내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 점은 외래어를 한국어적 일본어로 구사하는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28) ひざ	(膝)	[çidza]	[hiza]
ざせき	(座席)	[dzaseki]	[zyasek'i], [zasek'i], [zasekhi]
ちず	(地圖)	[tʃidz̥]	[tʃizu], [tʃitʃi], [dʰiz̥], [dʰaz̥], [tʃits̥]
なぞ	(謎)	[nadzo]	[nazou], [nazo:], [nazo]
ぜんねん	(前年)	[dzenneŋ]	[zenneŋ], [ze:nneŋ], [sa:nneŋ]

(28)의 예는 「ザ行」 파찰음계에 대한 발음 사례이다. 먼저, 「ハ行」은 [ha,çi,ϕu,he,ho]로 [-i]모음 앞에서는 무성 유기 경구개 마찰음 [ç]가 발음되고, [-u]모음 앞에서는 무성 유기 양순 마찰음 [ϕ]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차 후 성문음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 예로 「ひざ」 [çidza]가 유성 성문음 [h]음을 동반하고 「ざ」의 음을 터짐 소리 [za]로 발화하는 경우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ざせき」 [dzaseki]를 「じゃせき」 [zyasek'i]와 같이 한다든가 [zasek'i]로 나타나고 있다. 「ちず」 [tʃidz̥]을 발음할 때 [tʃizu], [dʰiz̥], [tʃits̥], [tʃitʃi] 즉, 「ず」 [dz̥]의 음이 [zu], [z̥], [ts̥], [tʃi]로 오용하여 발화되고 있다. 「なぞ」 [nadzo]의 경우, 「ぞ」 [dzo]의 음이 [zo:], [zou]로 모음을 장음으로 혹은 원순 [u]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ぜんねん」 [dzenneŋ]을 발화할 때, [ze:nneŋ], [sa:nneŋ]으로 「ぜ」의 음이 [ze:], [sa:]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29) じこく (時刻)	[dʰikok̥]	[ʰikhoku]
てじな (手品)	[tedʰina]	[theʰina]
おやじ (親父)	[oyadʰi]	[oyaʰi], [oyaʰʰi]

(29)의 용례는 [-i]모음 앞에서 [dz]음이 탈음 같이 소리 [dʰ]로 치경 경

구개 파찰음이 되는 경우이다. 「じこく」의 「じ」[dʒi]음이 어두에서 [ʒi]로, 어중에서는 [ʒi] 혹은 성문음[ʔ]이 동반된 [ʔʒi]로 발화되는 것이다.

(30) すいか(水火)[s̄wika]를	[suik' a],[suikha]
すき [s̄wki]를	[suk' i],[sukhi]
バス [bas̄]	[basu],[baʔsu],[baʔzo]

(30)의 예는 [s]음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 방언에서도 'Δ'의 음가로 [s]음이 보존해 있다. 모음이나 유성자음 사이에서 /s/가 탈락되지 않고 /musi/(무우), /masil/ (마을), /ʒsu/(여우) 등과 같이 고어 형태를 가지고 있다. [s̄w]의 발음이 무성 치경 마찰음 [s]음에 원순모음 [u]와 함께 [su]로 또, 「バス」[bas̄]의 경우 [basu], [baʔsu], [baʔzo]와 같이 성문음 [ʔ]을 동반하여 발화하고 있다.

(31) つか(追加)	[ts̄wika]를	[suik' a], [suikha], [tsuik' a], [ts̄wikha]
つき (月)	[ts̄wki]	[sukhi], [suk' i], [z̄w' k' i], [ts̄w' k' i], [ts̄w' khi]
ばつ (罰)	[bats̄]	[batsu], [bazou]
つい	[ts̄wi]	[ts̄wi], [sui]
つかう(使う)	[ts̄w' k' au]	[tʃikhau], [tsugau], [tsuk' au], [tsukhau], [zukhau], [zuk' au]
つり (釣り)	[ts̄w' ri]	[tsu' ri], [ts̄w' ri]
つち (土)	[ts̄w' tʃi]	[ts̄w' ʒi], [tsu' ʒi]
くつ (靴)	[kʷts̄]	[kutsu]

일본어의 「夕行」 가운데 「つ」[ts̥i]를 발화 할 경우, 「つか」[ts̥ika]를 [suik'a], [tsuik'a]로 하고 「つき」[ts̥uki]를 [suk'i], [z̥uk'i], 「ばつ」[bats̥i]를 [bazou]로 발음한다. 제주 방언과는 달리 /s/음과 /s'/음이 서로 변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s/음에서는 경음의 “ㅅ”로 대치하는 경우가 없고 어두에서의 「つ」[ts̥i]음은 [su], [z̥i]음으로, 어중에서는 [zou]로 발화하고 있다.

- (32) ちい (地位)[tʃi]를 [zii], [zi], [z̥i]
 ちかう(誓う) [tʃikau]를 [cikhau], [ʔik'au], [cik'au],
 [zigau], [zikau]
 ちり [tʃiri]를 [ciri]
 ちち (父) [tʃitʃi]를 [cici], [zuʔi]
 くち (口) [kʷtʃi]를 [kuc'i]

경상 방언의 구개음화는 경구개 모음 [i]나 반모음 [y] 앞에서 구개음화가 이루어진다.⁷²⁾ 어두에서 /k/계, /h/ 계가 [i]나 [y] 앞에서 /c, c', ch, s/로 변하고, /t/계는 음절 위치에 관계없이 / i, y /앞에서 /c, c',ch/로 변한다. 예를 들면, /kimchi/ -> /cimchi/(김치), /kicip/ -> /cicip/ (계집), /hjɔ/ -> /sɛ/(혀), /him/ -> /sim/(힘), /hjɔ / -> /sɛi/(형) /tinta/ -> /cinta/(디다) 등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t'/는 이 지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 방언 /t/계는 [i]모음 앞에서 [c]로 발화하는데 일본어의 「ち」[tʃi]음은 어두에서 [zi]로 어중에서는 ‘ㅅ’[c'i]로 소리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8) - (32)까지 일본어의 마찰음계 /s, ts, tʃ, dz, dʒ/에 대한 발음에서

72) 최세화(1987), 「국어학 논고」, 동국대 출판부, p.43.

먼저, /s/음은 모음 [ɯ]가 뒤에 올 때 원순성을 띤 [u]모음이 와서 [s̥u] 또는 성문음 [ʔs̥u]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ts/음은 일본어에만 있는 음소이므로 대체로 [s̥u],[z̥u]와 같이 발화되며, /dz/음은 먼저 「ぢ」[dza]음을 「じゃ」[zya]로, 「ず」[dz̥u]음은 [ts̥u] 혹은 [z̥u]로, 「ぞ」[dzo]음은 [zo:] 혹은 [zou]로 발화하고 있다. [i]모음 앞에서 구개화된 「じ」[dʲi]음은 [ci] 혹은 [ʔci]로 「つ」[ts̥u]음은 [s̥u] 혹은 [z̥u]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어두·어중에서의 무성자음 [t, k]는 [th, kh]의 거센소리로 발음을 하지만, [p]음은 된소리 [pʰ]음으로 하고 있다.

- (33) かがみ (鏡) [kaɸami]를 [khagami], [khaami]
 かが(繪畫) [kaɸa] [khaikha], [khaiga]
 しごと (仕事)[siɸoto] [sigot'ou], [sikotho]
 ひげ [çiɸe] [hikhe], [hik'e], [hige]
 しょうがっこう(小學校)[syooɸakoo]를
 [syogaʔk'ou], [syogaʔk'ou], [siyouak'ou],
 [syo:gak'ou], [syougakk'ou], [syougakhou]

비모음화 현상이란, 주로 모음이 비음화하는 현상, 즉 어떤 모음이 전후에 연결되는 비자음의 동화를 입어서 비음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경상 방언에서 /ɸ/은 모음 사이에서 선행모음을 비모음화시키고 /ɸ/은 삭제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homɸi/ -> [homɛi] (호미), /tolmɸi/ -> [tormɛi] (돌)
 /paɸmɸi/ -> [paɸmɛi] (방망이), /kumpiɸi/ -> [kumbi] (곰뽕이)

다음 일본어의 ㄱ行 비음화에 대한 예이다. 대부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10명 중 1명은 「かがみ」를 발화할 때, [khaãmi]로 /ㅎ/음이 삭제되어 발음을 하고 있다. 「しょうがっこう」[syooŋakoo]를 발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학생이 /ㅎ/음이 없는 [siyouak'ou]로 발음을 하지만, 불완전하게 이 음을 구사하고 있다.

- | | |
|------------------------|--------------------------------------|
| (34) かんあん(勘案)[kaãaŋ]를 | [kaãŋ], [gaãŋ], [khaãŋ], |
| いちまんえん(一万円)[itʃimaẽŋ]를 | [itʃimaŋen], [itʃimaẽŋ], [itʃma:nẽŋ] |
| れんあい(戀愛)[reãai]를 | [renai], [reãai], |
| | [reãi], [reãai] |
| ほんや(本屋)[hoŋya]를 | [hoŋya], [honya] |
| えんえい(遠泳)[eẽe:]를 | [enei], [enei], [eẽei] |

이 방언에서 「兄아!」라고 부를 때, [çijja] 또는 [hiijja] 앞 뒤 모음 [i]까지 비모음화하고 있다. 이것은 (33)의 예와 동일한 것으로 위 (34)의 예를 발화할 때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かんあん」[kaãaŋ]를 [kaãŋ], [gaãŋ], [khaãŋ]으로 모음사이의 /ㅎ/이 삭제되어 [kaãŋ], [gaãŋ]과 같이 발화되고 있다. 「いちまんえん」[itʃimaẽŋ]를 10명 중 6명이 [itʃimaẽŋ]으로, 「れんあい」[reãai]를 [reãi]로 발음하는 학생이 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음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부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고 있어 충분한 발음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 | | |
|----------------------|----------------------|
| (35) きく (菊) [kʰikʷ]를 | [kiku], [khiku] |
| くさ (草) [kʷsa] | [kusa], [kuʔsa] |
| ひかり (光) [çʰikari] | [hikhari], [hik'ari] |

		[çikari], [higari]
あります	[arimas̄]	[arimasu]
いきます	[ikimas̄]	[ikimas̄]
こころ (心)	[kokoro]	[khokhoro], [khokhoru], [khok'oro], [khogoru]

경상 방언에서도 역시 모음의 무성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くさ」[kʷsa]의 경우 무성자음 [k]와 [s]음 사이 모음 /u/가 무성화 없이 [kʷsa] 또는 성문음이 동반된 [kuʔsa]와 같은 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 「ひかり」[çikari]는 [hikhari]로 발음하는 학생이 4명, 유성음 사이에서 무성자음 [k]가 [higari]로 하는 학생이 3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あります」[arimas̄], 「いきます」[ikimas̄]와 같이 어미에 나오는 음이 무성화하는 경우도 역시 무성화하지 않고 있다.

(36) おへそ (お臍)	[o ^h eso]	[oheʔso], [o ^h eso]
へた (下手)	[heta]	[heda], [hetha], [het'a]
しはい (支配)	[si ^h ai]	[siai]
たいほ (逮捕)	[tai ^h o]	[taio], [thai ^h o], [thaiyo]
ひえ (冷え)	[çie]	[çie], [çi:e]
ひと (人)	[çito]	[çitho], [çit'o]
ホテル	[hoter ^h]	[hothoru]

일본어의 성문음 「ハ行」에 대해 한국어 경상 방언에서는 /h/ 약화 탈락 현상이 보인다. 이것은 서울 방언, 제주 방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유성음 뒤에서 /h/가 탈락되는 현상, 예를 들면 / si:no /(신호), / aop /

(아홉), / paʰak / (방학), / ɕianada / (회한하다)등에서 볼 수 있다. (36)의 용례에서 「しはい」[siʰai]을 발음할 때 [siai]로 /h/음이 탈락된 형태로 발화하는 학생이 한명, 나머지는 바르게 구사하고 있다. 「たいほ」[taiʰo]의 경우 [taio], [thaio],[thaiyo] 로 각각 발음하고 있다. 또, 모음 [i]앞에서는 무성 유기 경구개 마찰음 [ç]로 발화하는데 [çie], [çi:e]로 [i]모음이 장음 처리되고 있다.

- (37) ラグビー [ragubi:] [rakubi:], [laʔubi:]
 レントゲン[rentogeʃ] [nenthogen], [renthogeʃ], [rent'ogen]
 さんりん(山林)[sanriʃ] [sanniʃ], [saniʃ], [sariʃ], [saʃniʃ]
 くんれん(訓練)[kʷnreʃ] [kunreʃ], [kureʃ], [kuʷneʃ]

일본어 /R/음인 유성 치경 유음으로 한국어 경상 방언의 경우, 어두에서 /r/음을 /l/로 대응하여 [ragubi:]를 [laʔubi:]로, /n/으로 오용하는 경우, [rentogeʃ]을 [nenthogen], [renthogeʃ], [rent'ogen]으로 나타난다. 어중의 /R/음 「さんりん」[sanriʃ]을 [sanniʃ], [saʃniʃ]으로 [n]음으로 오용하여 발화하고 있다. [saniʃ]은 유음 [r]이 삭제되는 것과 [sariʃ]을 발음할 때 「ん」의 발음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다.

- (38) おばさん (叔母さん) : おばあさん(御祖母さん)
 いえ (家) : いいえ
 よじ (4時) : ようじ (用事)
 くき (莖) : くうき (空氣)
 いっしゅ (一種) : いっしゅう(一周)
 おく : おおく (多く)

(40) かんそう (感想)[kansoo]을	[khansou]
さんか (参加)[saŋka]	[saŋkha], [samkha], [saŋka]
あんまり [ammaɾi]	[a:nmari]
にんき (人氣)[nĩŋki]	[niŋkhi], [nĩŋk'i]
あんな [anna]	[a:nna]
あな [ana]	[a:na]

일본어 특수음소 /N/의 변이음 (39)의 促音 /Q/음과 마찬가지로 후속 자음과 같은 자질의 조음점을 비음 [m,n,ŋ]으로 실현된다. 경상 방언에서는 후속 자음의 조음점에서의 오류는 「さんか」를 [samkha]로 발음하는 학생도 있으며 또, 「あんまり」[ammaɾi]는 [a:nmari]와 같이 모라음소 「ん」을 환경에 따라 변하는 순음 [m]을 치경음 [n]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특이한 사실은 「あんまり」, 「あんな」를 발화할 때 각각 [a:nmari], [a:nna]와 같이 모음 [a]를 장모음 [a:]로 처리하여 撥音의 음길이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며 발음하고 있다.

2.5.3. 서울 방언 구사 일본어 학습자

1. 모음 음소

현대 서울 방언의 모음은 / a, ㅏ, o, u, ㅜ, i, e, ㅓ, u, o / 10 개이다.⁷³⁾ 서울 방언에서 현대에 오면서 [e]와 [ɛ] 모음의 분별이 되지않아서 젊은 층에서는 이 모음들의 변별을 하지 못해 최소대어로서 발성 연습이 필요하다. /e/(에)는 /e/(ㅓ)보다 턱의 각도를 작게하고 /ɛ/(애)는 /e/(ㅓ)보다 약간 크

73) 허웅(1965), 앞의 책.

게하면 그 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일본어의 모음에 비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음으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 방언 및 경상 방언에서도 그 방언의 유사한 음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우선 일본어의 [ɯ] 모음은 어두에서는 평순이며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약간 앞쪽인 것에 중점을 두고 일본어 모음 /a, i, ɯ, e, o/를 발음해 본다. 이 방언의 조사 내용도 제주 방언 조사 내용과 일치한다.

(41) うま (馬)	[ɯma]	을
うめ (梅)	[ɯme]	
あい (愛)	[ai]	[ai]
あう (會う)	[au]	[au]
かえ (買え)	[kae]	[k'ae], [kae], [khae]
かお (顔)	[kao]	[k'hao], [kao], [khao]
ふうふ	[ɸɯɯɸɯ]	[ɸɯuɸu], [sɯɯsɯ]
ふうふう	[ɸɯɯɸɯɯ]	[hɯɯhɯɯ], [ɸɯɯɸɯ], [sɯɯsɯɯ]로

일본어의 [ɯ]모음은 어두에서 거의 정확하게 [ɯma], [ɯme]와 같이 발음하고 있다. 馬, 梅 등의 경계가 없는 マ, メ 앞에 ウ가 ン과 같이 발음되는 경우 「ンマ」로 표기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역으로 표기에 영향을 받아서 「ウマ」라는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⁷⁴⁾ 어미의 [ɯ]모음은 10명 중 9명이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원순의 [u]모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다음 「ふうふ」[ɸɯɯɸɯ]를 발음하도록 했을 때, [ɯ]모음 앞의 성문음 [h]는 양순 마찰음 [ɸ]로 발화되나 한명의 학생이 [s]로 발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성문음 [h]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74) 今田滋子(1971), 日本語の發音指導の問題點, 『講座 日本語教育』, 第12分冊, 早稻田大學, 語學教育研究所, p.10.

2. 자음 음소

(42) かんぱん (甲板)	[kampã]	을	[khampan], [kamphã]
しんぴ (神秘)	[simpi]	를	[simp'i], [simphi]
べらべら	[perapera]		[p'erap'era], [pheraphera]
パン	[pã]		[p'ã], [phã]
パパ	[papa]		[p'ap'a], [phapha]

한국어 제주 방언(2)의 용례와 같이 (42)의 예도 무성음 [p]에 대한 것으로 撥音 「N -」 뒤에서 약한 기음이 동반된 [p']음으로 발화되는 대상은 10명 중 9명이고, 나머지는 더 많은 기음이 동반된 [ph]음으로 구사했다. 어두에서도 어중에서도 [ph]음으로 구사했던 학생이 무성[p]음을 똑같이 발화하였다. 나머지 9명은 어두에서 경음의 된소리 [p']음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제주 방언 일본어 학습자와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43) かんぱん (看板)	[kambã]	을	[khambã] 으로
しんぴ (審美)	[simbi]		
べらべら	[berabera]		
ばん (晩)	[bã]		
パパ	[baba]	을	

(43)의 예는 (42)와 변별적 대립을 이루고 있는 유성음 [b]에 대한 것이다. 이 음은 어두, 어중에서 평음 [b]로 발음하고 있다. 그 음가는 변하지 않는다. 서울 방언 구사 학습자들은 정확한 유성음 [b]를 구사하고 있다.

(44) たいがく (退學) [taigakʷ]를	[thaigakʷ], [thaigaku]
	[thaigak'ʷ]
てんき (天氣) [teŋki]를	[theŋk'i], [deŋk'i]
とういつ (統一) [tooit̚s̄]을	[thoʷits̄], [doʷits̄], [doʷizu]
とうきょう(東京) [tookyoo]를	[thookyooʷ], [thook'yoʷ],
	[thoʷk'yoʷ], [took'yoo]
ごうとう (強盜) [gootoo]를	[gootoo], [kootoo],
	[goot'oo], [goodooʷ], [goʷthoʷ]
せいと (生徒) [seeto]를	[seet'o], [seetho]
たけ (竹) [take]를	[khet'a], [thak'e], [dake], [dakhe]

(44)의 용례는 무성자음 [t]음에 대한 사례이다. 이 음이 어두에서는 기음이 동반된 [th]음으로 즉, 「たいがく」[taigakʷ]를 [thaigakʷ]로 하는 경우가 4명, [thaigak'ʷ]도 4명, 나머지가 [thaigaku]로 발화하여 어두에서 [t]음은 [th]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 음이 유성음과 무성음의 분별을 하지 못하는 [d]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어중에서는 [t']음으로 「ごうとう」[gootoo]를 정확히 발화하는 경우가 2명 뿐이고, 대부분이 [goot'oo], [kootoo]로 그리고,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유성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goodooʷ]로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것은 「たけ」[take]를 [thak'e]로 하는 경우와 유성음으로 발화하는 [dake], [dakhe]로 발음하는 경우에서도 같은 결과이다.

(45) だいがく (大學) [daigakʷ]를	[daigak'ʷ], [daigak'o]
	[thaigak'ʷ]
でんき (電氣) [deŋki]	[deŋk'i], [deŋgi]

どういつ	(同一)	[dooits̩]	[dowits̩], [dowiz̩]
どうきょう	(同郷)	[dookyoo]	[thoʷk'yoʷ], [dookyoʷ]
ごうどう	(合同)	[goodoo]	[goodoʷ], [goothoʷ], [gooto'o]
せいど	(制度)	[seedo]	[seido], [seet'o]
だけ		[dake]	[dak'e], [kheda], [dage]

(44)의 용례에 대한 유성음 [d]음에 대한 사례이다. 이 음은 어두에서는 무성음과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だいがく」[daigak̩]를 [thaigak'̩]로 발화하는 학생이 2명 있었다. 나머지는 바르게 구사하고 있으나 어중에 있는 다른 무성자음 [k]가 모음사이에서 유성음 [g]로 변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어중에 있는 유성음 [d]가 무성자음 기음이 강한 [th]음과 기음이 약한 동반된 [t']음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46) かい	(貝)	[kai]	[khai]
きねん	(記念)	[kine̯]	[khine̯], [ki:ne̯], [khane̯]
くち	(口)	[kʷtʃi]	[khʷc'i], [khʷts̩], [kʷc'i]
けんいん	(檢印)	[ke̯i̯]	[khe̯i̯], [khei̯], [kheni̯]
こご	(古語)	[kogo]	[khoko], [khogol], [khok'o]
かき	(柿)	[kaki]	[khak'i]

(46)은 무성자음 [k]에 대한 용례이다. 제주 방언에서와 같이 어두에서는 강한 기음이 들어 있는 [kh]음으로 어중에서는 약한 기음을 동반하는 [k']음으로 발화되고 있다. 「かき」[kaki]를 피실험자 10명 모두가 [khak'i]로 발음하고 있으며, 어중에서 자음 [g]가 있는 「こご」[kogo]에 대해서 조사해 본 즉 [khooko] 혹은, [khogol], [khok'o]로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47) がい(害)	[gai]을	[kai]
ぎねん(疑念)	[gineŋ]을	[kineŋ]
ぐち (愚痴)	[gwtʃi]을	[kʷc'i], [khʷc'i]
げんいん(原因)	[geŋiŋ]	[kheŋiŋ], [geniŋ], [geiŋ]
ごご(午後)	[gogo]	[googo], [goukoo]
かぎ (鍵)	[kagi],	[khagi], [khak'i], [kagi],
		[gagi], [gak'i]

(46)의 무성 자음 [k]의 용례에 대한 최소대립어가 (47)의 사례이다. 유성 음 [g]의 발음 분석을 해본 즉, 어두에서는 대체로 올바르게 구사하고 있으나 처음 무성 [k] 자음으로 발음한 한 학생이 유성 [g]음과 혼용하여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ぐち」[gwtʃi]를 [kʷc'i], [khʷc'i]와 같이 잘못 오용하여 발화하고, 어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음 사이에서 [g]음을 오히려 반대로 [k]음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かぎ」[kagi]를 [khagi], [gagi], [gak'i]로 발화하고 있으며, 「かき」[kaki]와 혼용하여 발음을 구사하는 학생도 몇 명 있다.

(42) - (47) 의 자료에서는 무성자음 [p,t,k]와 유성자음 [b,d,g]에 대한 사례를 최소대립어로 발음을 시도해 보았는데 무성자음 [p,t,k]가 어두에서 [p',th, kh]가 대체적으로 보여지고 어중에서는 [p', t', k']음으로 약한 기음이 동반되고 있다. 유성자음 [b,d,g]에서 [b]음은 거의 평음으로 정확하게 발화되고 있다. [d,g] 유성자음은 어두에서 [th, kh]로 어중에서는 [t', k']로 오용하고 있다. 이것은 유성음이 한국어에는 어두에 오지않기 때문에 오는 생소한 문제인데 어중에서는 유성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충분한 발음 연습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げた」는 한국어 음운체계에서濁音が 두자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geta]의 [ge]는 [ke]가 되고 모음과 모음사이에 끼어있는 [t]는 유성음화 현상에 의해 [keda]와 같이 발음하여 현재까지도 이렇게 오용하고 있다. 이것은 두가지 언어를 접촉 (in contact)하면서 모국어의 간섭으로 모국어와 유사하게 발화되는 것이다.

(48) ひざ	(膝)	[çidza]	[hiza], [hidʰa]
ざせき	(座席)	[dzaseki]	[sasek'í], [zasek'í]
ちず	(地圖)	[tʃidzũ]	[cizũ], [ziʔtsũ]
なぞ	(謎)	[nadzo]	[nazo]
ぜんねん	(前年)	[dzenneŋ]	[zenneŋ], [ze:nneŋ], [seŋneŋ]

(48)의 예는 [z]음이 한국어의 어두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성음으로 발음하는 학생이 드물고 대부분 [c]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조음점은 한국어의 「ㄗ」과 같이 취하기 때문에 [z]음이 마치 [ʃ]처럼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어두의 [dz]는 [s]음과 구개화된 [dʰ], [tʃ]음으로 발화하기 쉽다. 어중에 나오는 「ちず」[tʃidzũ]는 [ziʔtsũ]로, 「ず」[dzũ]음이 「つ」[tsũ]로 대응하여 발화하고 있고 어두의 [dze]음이 마찰음 [se]로, [dza]음은 [s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9) じこく	(時刻)	[dʰikokʷ]	[dʰikhokʷ], [dʰik'okʷ], [zigokʷ]
てじな	(手品)	[tedʰina]	[thezina]
おやじ	(親父)	[oyadʰi]	[oyaʰi]

(49)의 예는 구개화된 「じ」[dʰi]음에 대한 용례이다. 어두에서는 「じこく」

[dʰikokʷ]를 [dʰikhokʷ], [dʰik'okʷ], [zigokʷ]와 같이 [dʰi]음을 정확히 구사하고 있으나, 다른 무성 자음이 유성음화 내지는 된소리로 발화하는 경우를 엿볼 수 있다.

(50) すいか(水火)[ṣ̥ika]		[suik' a], [suiga], [ṣ̥ik' a], [suikha]
すき	[ṣ̥ki]	[ṣ̥k' i], [suk' i]
バス	[baṣ̥]	[baṣ̥], [batṣ̥], [batʃi]

(50)의 용례는 [ṣ̥]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예이다. 설단의 앞 부분과 잇몸의 앞 부분의 사이의 폐쇄가 순간적으로 유지된 후 설단의 파열이 일어나서 즉시 [ṣ̥]의 자음 [s]에 가까운 위치를 지나 [ʷ]에 가까운 위치로 넘어가서 이 마지막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유지된다. 설단 파열 후 [ʷ]에 가까운 위치가 잡힐 때까지 혀는 항상 움직여 가며 이 파열음의 뒤에 들리는 [s]에 가까운 소리로 /su/의 [s] 보다 짧고 모음은 중설적 [̣̥]음이다. 그런데 (50)의 예 중, 「すいか」[ṣ̥ika]를 발화할 때 설단파열 후 발음하기 쉬운 원순의 [u]모음으로 [suik' a], [suiga]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ṣ̥]를 [tṣ̥], [tʃi]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51) ついか (追加)[tṣ̥ika]		[chik' a], [tṣ̥iga], [ṣ̥ik' a], [tṣ̥ik' a], [tṣ̥ikha]
つき (月)	[tṣ̥ki]	[chik' i], [ṣ̥gi], [tṣ̥k' i] [ẓ̥k' i]
ばつ (罰)	[batṣ̥]	[batṣ̥]
つい	[tṣ̥i]	[ẓ̥i], [zui], [tʃii]
つかう (使う)[tṣ̥kaʷ]		[tṣ̥gaʷ], [tṣ̥k' aʷ], [zuk' aʷ], [suk' aʷ]

つり (釣り)	[tsüri]	[züri], [süri], [tjiri]
つち (土)	[tsütji]	[tsütji], [cici], [sütji]
くつ (靴)	[kwtsü]	[kwtfu]

(51)의 예는 「つ」[tsü]음에 대한 발음 사례이다. 피실험자 대부분이 어두에서는 [tsu] 또는, 조음점이 경구개화되고 강한 기음이 동반된 [chi], 마찰음 [su]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つき」를 발화할 때, [chik'i]로 소리내는 경우가 1명, [sügi], [tsük'i], [zük'i]와 같이 서로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다. 어중·어미에서는 [tju]와 같이 조음점이 경구개 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다.

(52) ちい (地位)	[tjii]를	[tsüii]
ちかう(誓う)	[tjikaw]를	[cik'au], [tfigaw], [zik'au]
ちり	[tjiri]를	[ciri], [zi'ri]
ちち (父)	[tfitji]를	[c'ic'i], [zu'i]
くち (口)	[kwtfji]를	[kw'c'i]

(51)의 예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52)의 용례를 혼련함으로써 자신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ちち」[tfitji]를 [c'ic'i]로 제주 방언과 유사하게 유성음과 무성음의 식별 능력이 부족하다.

(48) - (52) 일본어 마찰음계 중 /ts, dz/의 음이 한국어 음운체계에는 볼 수 없는 음소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운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음 /c, z/로 혹은 발음하기 쉬운 /s/음으로 대치하여 발화하고 있다.

- (53) かがみ (鏡) [kaʃami]를 [khagami], [kaãmi]
 かが(繪畫) [kaʃa] [khaiga], [khaikha], [gaiga]
 しごと (仕事)[siʃoto] [sigot'ol], [zigot'ol], [siõt'ol]
 ひげ [çiʃe] [hige], [çiʃe], [hige]
 しょうがっこう(小學校)[syooʃakoo]를 [syoʊgakk'oo], [syoogakk'oo]

(53)의 예는 /가行/의 비음화이다. 비음화란 소리 자체가 콧소리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조음 과정에서 목젢과 인두벽 사이에 닫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날 숨이 코안으로 흐르게 될 경우 그 소리를 말한다.⁷⁵⁾

안기다 > 앙기다 [angida > agida], 붕어 /buʃə/ [bu:ʃə], 향아리 /haʃari/[haʃari]등이 이것이다. 어종의 /가行/음은 비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동경 방언의 표준음이며, 음악계, 언론계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かがみ」[kaʃami]의 경우를 대부분은 [khagami]로, 한명은 [kaãmi]로 비음화하고 있고, 「ひげ」[çiʃe]를 발화하는데 [hige], [çiʃe], [hige]로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충분한 연습이 요구된다.

- (54) かんあん(勘案)[kaãaʃ]를 [kaãʃ], [gaãʃ], [khãaʃ]
 いちまんえん(一万円)[itʃimaɛʃ]를 [itʃimaʃen], [itʃimaʃʃ],
 [itʃma:neʃ]
 れんあい(戀愛)[reʃai]를 [renai], [reʃai],
 [reãi], [reʃai]
 ほんや(本屋)[hoĩya]를 [hoʃya], [honya]
 えんえい(遠泳)[eɛe:]를 [ɛmei], [ɛnei], [ɛʃei]

75) 황희영(1991), 한국어 음운 개설, 반도출판사, p.84.

일본어의 >/N/ 발음과 관련한 비모음화에 대한 발음 사례이다. >/N/의 조음점을 정확히 취하기 어려워 정확한 음의 길이를 내는데에 난점을 가지고 있다. (54) 모음의 /N/은 /a,e,o/앞에서는 이들 보다 약간 좁은 모음이며, /i,e/ 앞에서는 그것들 보다 약간 뒤쪽 /a,o/ 앞에서는 그것 보다 앞쪽 모음이다. [haĩi](範圍), [saẽɛɯ](三円), [kaʌaɯ](勘案), [paũo](빵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54)의 용례에서는 가령, 「えんえい」[eẽe:]의 경우 [emei], [eĩeɛi], [eẽei]로 특수음소 >[N] 앞에 오는 모음이 비음으로 소리나는 경우와 모음 앞 >[N]음은 보통 [ŋ]음으로 대치하고 있다.

(55)	きく	(菊) [kʰkʷ]	를	[kikʷ]
	くさ	(草) [kʷsa]		[kʷsya], [kusa], [gusa]
	ひかり	(光) [çʰkari]		[hik'ari], [higari], [sigari]
	あります	[arimasʷ]		[arimasü]
	いきます	[ikimasʷ]		[ik'imasü]
	こころ	(心) [kɔkoro]		[khok'oro], [kok'oro], [kok'oro], [gok'oro]

동경 방언에서 무성자음이 마찰음인 경우 그 부분에 성대의 진동을 느낄 수 없는 모음 [i][ɯ]에 무성화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55)의 무성화 현상에 대한 용례에서 보면 거의 무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성화가 일어나는 「ひかり」의 경우, 유성음 사이의 무성자음이 유성화하는 사실과 같이 [çigari], [sigari]로 어중의 무성자음 [k]가 된소리 [k']로 발음하는 학생이 [hik'ari]로 모음은 무성화하지 않는다.

(56)	おへそ (お臍)	[oʰeso]	를	[oʰeso]
------	----------	---------	---	---------

へた (下手) [heta]	[hetha], [het'a]
しはい (支配) [si ^h ai]	[siai], [si ^h ai], [sibai]
たいほ (逮捕) [tai ^h o]	[dai ^h o], [thai ^h o]
ひえ (冷え) [çie]	[çie]
ひと (人) [çito]	[hitho], [hit'o], [hido]
ホテル [hoter ^w]	[hother ^w], [hot'er ^w]

성문음 [h]음에 대한 용례 (56)이다. [h]음이 모음 [u] 앞에서는 양순 마찰음 [ϕ]로 발음되는데 한국어 서울 방언에서 [h]음이 탈락하는 경우, 후들 후들 [ϕud^wϕud^w]과 같은 소리 흉내 말에서 나타난다. (41)의 모음 음소에서 「ふうふ」[ϕuu^wϕu^w]를 발화하는 경우, [suuu^w]로 발음하는 학생이 1명, 양순 마찰음으로 [ϕuuu^w]로 발음하는 학생은 9명이다. 이 [ϕ]음은 촛불을 끄듯이 날숨을 불면 나오는 소리이다. 또한, 모음 [i] 앞에 오는 경구개 마찰음 [ç] 음의 예로 「ひと」[çito]로 이것을 [hit'o] 혹은 [hido]로 마찰이 약하여 [çi]가 [hi]로 무성자음 [t]는 모음 사이에서 [d]로 유성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중에서는 /h/음이 탈락하여 「しはい」[si^hai]를 [siai]와 같이 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서울 방언에서도 볼 수 있었다.⁷⁶⁾

(57) ラグビ- [ragubi:]	[ragubi:]
レントゲン[rentoge ^h]	[entogen], [rent'ogen]
さんりん(山林)[sanri ^h]	[sanni ^h], [sa ^h ri ^h], [salri ^h], [sa ^h ni ^h]
くんれん(訓練)[kwnre ^h]	[kwnre ^h], [kwnren], [kwnne ^h]

76) 고향 [go^hja^h] > [goja^h], 오후 [o:ϕu] > [o:u]에서 [h]음이 탈락되는 경우가 보여진다. 이것은 각 방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어의 [R]음의 ラ,リ,レ,ロ,ルの 「r」음은 영어의 「r」과 같다. 그렇지만, 리의 경우에는 [d]에 아주 가까운 발음이 된다. 일본어의 [r]음은 후두음이고 [l]과 [r]를 완전히 구별할 수 없다.

한국어의 산(山)은 サン[san], 신라 [ʃilla], 달나라 [tallara]의 假名表記 ララ는 글자는 같지만, [l]과 [r]로 각각 나타난다. 그리고 끈란 [ko:llan]은 양방이 [ll]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57)의 예에서 어두 [r]음은 거의 정확히 발화되고 있으나, レントゲン [rentogeŋ]을 탄음 [r]음을 뺀 모음부터 시작하여 [entogeŋ]으로 발음하는 학생이 한명 있다. 어중에서 「さんりん」 [sanriŋ]은 [sanniŋ]이 2명, [saŋriŋ]이 4명, [salriŋ]이 1명, [saŋniŋ]이 1명, 나머지는 정확히 발음하고 있다. 「くんれん」[kwnreŋ]은 [kwnreŋ], [kuren], [kwnneŋ]으로 각각 발화하고 있다.

- (58) おばさん (叔母さん) : おばあさん(御祖母さん)
 いえ (家) : いいえ
 よじ (4時) : ようじ (用事)
 くき (莖) : くうき (空氣)
 いっしゅ (一種) : いっしゅう(一周)
 おく : おおく (多く)
 ここ : こうこう (高校)
 くつ (靴) : くつう (苦痛)

일본어의 장·단음은 假名 표기면에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서울 방언 및 제주 방언, 경상 방언에서도 장·단음은 표기상 나타나지 않아서 그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다.⁷⁷⁾

77) [일] (ひとつ) : [일:] (仕事), [굴] (かき) : [굴:] (洞窟)

현재 장·단음의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장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58)의 예를 들면, 「ここ」[koko]를 「こうこ」[kooko]로 4명이 [ko]의 발음을 길게 [koo]로 하고, 어두의 무성음 [ko]를 유성음 [go]로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いっしゅう」[issy^u]를 [issy^u], [issy^o], [issy^u], [isyuu]로 혼용하여 쓰여지고 있다. 「いえ」[ie]와 「いいえ」[i:e]의 최소대어로 서로 음대립하여 발화하였을 때 변별력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하나 구분하면 그 변별력을 잃는 경향이 있다.

(59) かつそう (滑走)[kassoo]을	[khassoo], [khassou], [khasso ^u]
さっか (作家)[sakka]	[sakk'a]
マッチ [mattʃi]	[mattʃi], [matts ^u]
いって [itte]	[itt'e]
きって [kitte]	[khitt'e], [kitt'e]

어두·어말에 오지않는 오직 어중에만 오는 (59)의 특수 모라음소이다. 제주,경상 방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모라음소 /Q/는 그 후속자음과 함께 중자음(double consonant)를 이룬다. 예를 들면 /iQpa'i/[lippai], /saQka/[sakka]와 같이 후속자음에 동화하기 때문에 발음은 그다지 문제는 아니지만, 리듬의 단위의 拍을 이해하여야 한다.

作家 /saQka/ [sakka]와 坂 /saka/ [saka],
 いて /ite/ [ite]와 いて /ite/ [ite]

여기 예에서 「かつそう」[kassoo]를 6명이 [khassoo], 3명이 [khassou], 나머지 한명은 [khasso^u]로 유사한 음으로 발화하고 있다. 「いって」[itte]는 [itt'e]로 促音 뒤 후속 자음이 된소리 경음으로 소리내고 있다. 이것은 「きって」의 경우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60) かんそう (感想)[kansoo]	울	[khaʃsoo], [khansoo]
さんか (参加)[saʃka]		[saʃga], [saʃk'a]
あんまり	[ammaʀi]	[a:nmari], [anmaʀi], [ammaʀi], [aʃmaʀi]
にんき (人氣)[niŋki]		[niʃkhi], [niʃk'i]
あんな	[anna]	[an:na], [anna]
あな	[ana]	[a:na]

마지막 어두에 오지 않는 특수 모라음소 /N/이다. 단독으로 발음이 불가능한 지속음에 따라 발음이 달라짐을 이미 숙지하였다. 다시말하면, 순음[p, m, b], 설음 [t, d, n, t, ts, d, dz], 연구개음 [k, g] 각각 앞에서 [m],[n], [ʃ] 으로 발음한다. 서울 방언에서는 모라음소 /N/가 설음 [s] 앞에 올 때 6명은 한국어의 ㅇ [ʃ]으로, 나머지 4명은 [khansoo], [n]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또, 「あんまり」[ammaʀi]를 정확히 발음하는 이는 4명 이외에는 각각 [anmaʀi], [an:maʀi], [aʃmaʀi]로 나타나고 있다. 「あんな」[anna]는 거의 흡사한 발음을 구사하고 있으나, 「あんまり」를 [an:maʀi]로 발음했던 학생이 [an:na]로 「ん」[n]음을 길게 소리내고 있다. 이처럼 「ん」의 변이음이나 拍의 길이를 주의시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일 것이다.

2.6. 일본어 음성 교육의 문제점 및 그 방향 모색

서울 방언, 제주 방언, 경상 방언을 구사하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고등학교 3학년)를 대상으로 발음 실태 조사를 해보았다.

모음/ウ/: 서울 방언(이하 S로 표기함), 제주 방언(이하 J로 표기함)에서 일본어를 학습한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즉, 어두에 오는 /ウ/

모음은 올바르게 발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중이나 어말에 오는 경우는 영어의 [u]모음과 같이 원순성을 띠고 있다. 또한, 경상 방언(이하는 K로 표기함)에서는 “으”와 “어” 모음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ʊ/모음을 구사하는 데는 발음하기 쉬운 원순의 [u]음으로 발화하고 있다.

모음/ɛ/: S 방언, K 방언에서는 현대에 와서 e :ɛ 의 구별이 명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이 음은 어느 쪽을 구사하더라도 시차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J 방언에서는 [e]음을 小倉進平氏에 의하면 e :ɛ 의 간음 [E] 으로 보는데 이 음의 발음을 시도했을 때 거의 흡사한 발음을 하고 있다.

모음/ɔ/: 小倉進平氏는 J 방언의 ‘오’음을 일본어 /ɔ/보다 보다 더 원순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ɔ/음을 구사할 때 이 방언 구사자들은 ‘오’음 보다 평순으로 발화한다면 정확한 음으로 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어 /ɔ/모음을 구사하는데 있어 각 방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각 방언마다의 음소 차이를 피실험자에게 인식시키고 아울러 양국어의 음소 특징과 변별적 자질등을 교육시킨다.

다음은 각 자음 음소의 무성음과 유성음의 변별적 자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 양음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 발음을 하도록 했다. J 방언에서는 ダイガク[daigaku]를 발화할 때, 어두에서는 대부분 가까운 유성음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어중에 있는 [ga]음은 경음의 [k'a] 혹은 격음의 [kha]로 대치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S 방언에서는 어두의 유성음을 내는데에 있어 격음의 [thaigaku]와 같은 음으로 대치하는 경향도 있다. 이처럼 일본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은 한국인에게 있어 생소한 음운 체계이므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각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ツ/:/ス/:/ザ/:/ズ/와 같은 음을 발화하는 경우, /ス/[s̥]음은 J 방언, K 방

언에서는 15세기 문헌 △ 음가 [s]음이 '아시'(弟)와 같이 남아있다. J 방언을 구사하는 학생들에게 'スキ'[sʷki] 발음을 구사하도록 했는데, [sʷk'i]와 같이 /키/의 발음이 된소리 발음으로 발화하고 있다. 또한, 'ケチ'[keci]는 S 방언에서는 [kec'i]와 같이 발음하고, J 방언에서도 [kec'i]로 발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 K 방언에서는 [keci]와 같은 유사한 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ツキ'[tsʷki]를 발화하는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c'ʷki] 혹은 [s'ʷki]로 발음하고 있다.

성문음에 대해서는 각 방언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가령, /anohito/를 발음할 때, S 방언에서 좀 빨리 무의식적으로 읽게 되면 [anoito]와 같이 발화한다. 그리고, J 방언에서는 일본 관동 지방에서 발음하는 것 처럼 [anosito]로 구사하는 경우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양국어의 음소와 그 변이음을 음성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모음의 무성화 현상에서 S 방언, J 방언, K 방언에서는 무성자음 사이에 끼어있는 모음이 무성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모음 그대로 유성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キク[kikʷ]의 경우 [kikʷ]의 [i]모음은 유성음으로 발화한다. S, J, K 방언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促音과 長音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長音의 경우, J 방언에서 곱다(隠), 곱다(麗)는 音長을 인정할 듯하지만 그 변별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S 방언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왔다. 撥音에 있어서는 S 방언, J 방언에서는 유사하게 발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アンナ[anna]의 경우 S 방언과 J 방언에서는 [anna]로 발화하고 있는데, K 방언에서는 [a:nna]로 [a:]를 길게 발음하고 있다. 이것은 경상 방언에서 [n]음이 개입되는 현상이 많은데, 그 예로 /kontʃhi-nda/(改)를 들 수 있다. 일본어의 특수음절, 撥音, 促音, 長音의 발음의 성질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변이음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제 2언어인 일본어를 습득하는 경우, 모국어의 간섭으로 모국어의 음이 일본어의 음에 대치되는 발음 사례들을 모아 제주, 경상, 서울 방언을 구사하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대 일본어의 공통어인 동경 방언을 중심으로 일본어 발음 경향 실태를 조사 비교하였고, 이것들을 통한 일본어 음성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국 각 방언의 특색을 고려하여 고찰해 보았다. 한국어의 각 방언은 모음의 음가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1. 현대 제주 방언의 모음 음소는 /a,ɐ,ə,o,u,ɯ,i,E/ 8개이다. 이 모음중 /ɛ/와 /e/의 중간음인 /E/는 일본어의 ɛ[e]음과 유사한 음이며, /ɔ/[ɔ]는 일본어의 ɔ[o]보다 원순성을 띠고 있다.

현대 경상 방언의 모음 음소는 /a,i,o,u,ɜ,E/ 6개이다. 모음/ɜ/는 /ə/와 /ɯ/의 변별력을 갖지 못하여 보통 /ə/로 발음된다. 또 이 방언에서 /e/와 /ɛ/의 구별이 되지않고 있다. 현대 서울 방언의 모음 음소는 /a,e,ə,o,u,ɯ,i,ɛ,ø,ü/ 10개이다. 이 방언에서도 젊은 층은 /e/와 /ɛ/모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각 방언의 모음은 일본어 동경 방언의 모음 음소 /a,o,ɯ,i,e/보다 더 수가 많기때문에 그와 유사한 음으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본어의 /ɯ/모음은 한국어 각 방언에 있어서 발음하기 쉬운 원순의 /u/모음으로 대치하여 발음한다. 일본어의 [ɯ]는 [u]의 평순음으로 한국어의 [ɨ]에 가까우나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약간 앞쪽이고 혀도 약간 적게 올라 가도록 조음 방법과 위치를 설명한다. 또한, 일본어 [ɯ]모음 앞에 /c, z /에 해당하는 음 [ts, dz]가 오면 /u/모음은 중설적인 [ɯ]모음 [tsɯ,dzɯ]가 된다. /e/(애)는 /e/(ɛ)보다 턱의 각도를 작게하고 /ɛ/(애)는 /e/(ɛ)보다 약간 크게하면 그 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자음 체계는 평음, 경음, 격음 삼중대립을 이뤄 각각 변별적 차이를 보인다. 양순파열음 /p, p',ph/ [ㅍ,ㅍ',ㅍ], 치경 파열음 /t, t', th/ [ㄷ,ㄷ',ㄷ], 연구개 파열음 /k, k',kh/ [ㄱ,ㄱ',ㄱ], 경구개 파열음 /c ,c',ch/ [ㅈ,ㅈ',ㅈ]으로 일본어의 자음 체계는 파열이 강한 무성 폐쇄음 /p, t, k/와 파열이 약한 유성 폐쇄음 /b, d, g/로 이중대립을 이루어 변별적인 차이를 보인다.

① 제주 방언, 서울 방언을 구사하는 일본어 학습자가 무성자음 [p, t, k]를 발화할 경우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어두의 무성음은 기음이 동반된 [p',th,kh]로, 어중에서는 약한 기음이 있는 [p',t',k']로 발음한다. 제주 방언에서 어중의 무성자음 /ㄱ/이 /ㄱ'/'으로 " 효과 > 효파, 근사값 > 근사값"과 같이 발음하는 예가 있다. 무성자음 [p]는 어두, 어중에서 [p']음으로 대체하고 있다. 외래어 「パン」이나 「ペラペラ」를 발음할 때 한국어적 일본어 로 구사하는 경향을 각 방언에서 볼 수 있다. 유성자음 [b, d, g]는 어중에서 평음 [b]음으로, 어두에서는 [th, kh] 혹은 [t', k']로 응용하여 발화 한다.

② 경상 방언에서 어두, 어중에 오는 무성자음은 기음이 동반된 거센소리 [p',th,kh]로 나타난다. 어중의 무성음이 격음으로 발화하는 것은 그 單音を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성자음 [b, d, g] 중, 어중의 [b]음은 이 방언에 현존하는 음으로 고어 형태로 남아 있어 평음 [b]음으로 발음한다. [d, g]는 어두에서 [th, kh] 거센 소리로 발음한다.

3. 일본어 마찰음계 /s, ts, tʃ, dz, dʒ /에 대한 발음 사례이다. 이 마찰음계의 음소 가운데 한국어에 없는 /ts, dz/의 음에 대해 살펴 보았다.

① 제주 방언을 구사하는 학습자의 /s/음은 어두에서는 'ㅅ'의 음가가 남아있어 [s]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중에서는 「ㅆ」[c'], 「ㅆ」[s']로 대체하

고 있다. /dz/음은 어두, 어중에서 발음하기 쉬운 음 [c'], [s], [dʰ]음으로 나타난다. /tʃ/음은 어두, 어중에서 무성 무기음 [c']로 발음한다. /dʰ/음은 어두, 어중에서 [s], [dʰh]로 발화한다. /ts/음은 [tʃ'], [s']로 조음점이 연구개쪽으로 옮겨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음은 한국어에 없는 음소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유사한 음으로 전이 시키고 있다.

② 경상 방언에서는 /s/음은 어중에서 [ʔs̃]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ts/음은 어두, 어중에서 대체로 [s̃], [z̃]와 같이 발화하며 /dz/음은 어두, 어중에서 [zya], [z̃]로 나타난다. /dʰ/음은 어중에서 /c/ 혹은 /ʔc/로 발화하고 있다.

③ 서울 방언에서도 제주 방언과 비슷하게 한국어 음운체계에 볼 수 없는 /ts, dz/의 음소를 조건 이음인 /tʃ, dʰ/와 서로 혼용하여 발음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어의 음운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음 /c, z/로 혹은 /s/ 음으로 대치하여 발화하고 있다. 마찰음계 자음은 어두에서는 거센소리를 내지 않고, 어중에서는 된소리로 발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4. 모음의 비모음화는 후속모음 [i, y, a, e, u, o]가 올 때 「ㄴ」은 [ĩ, ẽ, õ, ä, ɰ]와 같이 비모음으로 나타난다. 제주, 서울 방언에서는 대표음 [ɰ]음으로 모음이 비음화되지않고 있다. 경상 방언에서는 모음사이의 /ɰ/음이 삭제가 되어 비모음화 경향이 있지만, 불안정한 발음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발음 연습이 필요하다.

5. 무성자음 사이에 나타나는 모음의 무성화 현상은 한국어 각 방언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일본어 동경 방언의 특색으로 일본어 발음을 하는데 있어 언어적인 의미의 대립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한拍의 길이로 발음을 해야 한다. 음의 길이를 인식하여 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성문음 「ハ行音」의 변이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제

주 방언에서 [-i]모음 앞의 /h/음은 [h], [s]로 오용하고 있다. 서울, 경상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h/음이 어중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7. 일본어 /R/음은 한국어의 경우 어두에 /r/음이 오는 일이 없으므로 자음없이 모음부터 발화하는 경우와 어중에서 [n], [l]음으로 대체하여 발음하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최소대립어로 분류하여 발음하도록 한다.

8. 일본어의 장모음과 단모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한국어 각 방언에서 장모음을 단모음으로 처리하거나 철자법 그대로 발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히 경상 방언에서는 단모음을 장모음으로 발화하여 서로의 변별력을 잃고 있다.

9. 특수 모라음소 /Q,N/음은 단독으로 발음이 불가능한 지속음으로 후속 자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 음소들은 한 拍의 길이를 갖는 음으로 각 환경에 따라 변이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보통, 撥音 /N/음소는 각 방언에서 「ㄴ」, 「ㅇ」의 음으로 대체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

10. 음절의 구조는 서로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CV형 구조는 일본어 음절의 특색 이지만, 제주 방언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로 이는 알타이어족 계통의 음운적 특징으로 개음절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일본어 음절에는 모라음소라는 특수음소가 있는데 한국인에게는 이 음소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에 명확한 拍의 길이로 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몇 가지 일본어의 음성적 특질과 관련하여 각 방언 마다의 오용례를 분석해 보았다. 모국어가 외국어 학습에 있어 제 1차적인 장애의 원인이 되지만, 일본어 학습자의 모국어에 관한 지식 및 그것에 근거를 둔 문체점에 대해 예측을 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교수 방법이나 심리적인 면에 기인되는 여러 요인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梅田氏에 의하면 제주 방언과 서울 방언은 서로 가까운데 경주 방언은 거리가 멀다고 한다. 이것은 운률적인 액센트 문제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본 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이 액센트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梅田博之(1963), 「朝鮮語諸方言の基礎語彙統計學的研究」, 「朝鮮學報」, 第27卷, 日本, 天理大學 朝鮮學會.
- 今田滋子(1987), 「日本語の發音」, 學士院.
- (1976), 「日本語の發音指導の問題點」, 講座 日本語教育, 第12分冊, 早稻田大學, 語學教育研究所.
- (1970), 「日本語教育における發音の問題」, 講座 日本語 教育, 第6分冊, 早稻田大學, 語學教育研究所.
- 築島裕 (1983), 「國語學」, 東京大學出版會.
- 服部四郎(1979), 「新版 音韻論と正書法」, 大修館書店.
- (1971), 「音聲學」, 岩波書店.
- (1964), 「言語學の方法」, 岩波書店.
- 金田一春彦(1993), 「日本語音韻の研究」, 學文社.
- 馬淵和夫(1979), 「國語音韻論」, 笠間書院.
- 大野晋(1974), 「日本語の起源」, 岩波書店.
- 杉藤美代子(1990), 「講座 日本語と日本語教育3」, 日本語の音聲・音韻(下), 明治書院.
- 紫谷方良, 影山太郎, 田守育啓(1981), 「言語の構造」(音聲・音韻), くろしお出版.
- 文化廳(1988), 「音聲と音聲教育」.
- 天沼寧외 2명(1985), 「日本語音聲學」, くろしお出版.
- 日本音聲學會(1976), 「音聲學大辭典」, 三修社.

- 石田敏子(1988), 「日本語教授法」, 大修館書店.
- 川上泰(1979), 「日本語音聲概説」, 櫻楓社.
- 水谷修(1974), 「音聲教育の問題點(1)」, 日本語教育研究 第10號.
- _____ (1975), 「音聲教育の問題點(3) - が行濁音をめぐって」
 , 日本語教育研究 第12號.
- _____ (1976), 「音聲教育の問題點(4) - 促音をめぐって」
 , 日本語教育研究 第13號.
- 國際交流基金(1981), 「日本語 はつおん」(한국어판), 凡人社.
- Bloomfield(1954), 「language」, new york.
- 小倉進平(1925), 南部朝鮮の方言目録, 朝鮮史學會.
- 梅田博之(1983), 韓國語의 音聲學的 研究, 螢雪出版社.
- 金芳漢(1970), 「言語學論攷」, 서울大出版部.
- 김공철(1983), 「일본어 음운론」, 학문사.
- _____ (1988), 「방언학」, 신아사.
- 김승곤(1983), 「음성학」, 정음사.
- 김형규(1980),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숙자(1983), 「일본어 학습자의 음성학적 오류에 관한 연구」
 , 상명여대 논문집 제12집.
- 김승한(1982), 「韓日兩國語의 音韻組織의 違いと音聲教育上の問題について
 一考察」, 한국외국어대 석사 논문.
- 김홍식(1977), 「용언의 말음 모음에 대하여」, 제주대 논문집 9집.
- 김지환(1993), 「현대 일본어 음간섭 효과의 유형에 관한 연구」
 , 동국대 석사논문.
- 권혜숙(1993), 「일본어의 연탁과 한국어의 경음화 현상」
 , 동국대 석사논문.

- 박희태(1975), 『日本語の子音體系とその音聲教育について』
 ,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 박시하(1992),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의 오류의 조사연구』
 , 한국외국어대 교육학 석사논문.
- 서정범(1965), 『제주도 방언의 음운변화고』, 경희대 논문집 4집.
- 신용태(1986), 『일본어 음성교육에서의 문제 사례고』, 일본학보 제16집.
 _____(1978), 『한·일어의 음성·음운학적 비교 연구』
 , 부산여대 논문집 제7집.
-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육수(1986), 『일본어 음성교육상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이창우(1980), 『한·일 양국어 대조 음성학』, 한마음사.
- 허용(1984), 『국어음운학』, 정음사.
- 황희영(1991), 『한국어 음운 개설』, 반도출판사.
- 황찬호외 3명(1993), 『한·일어 대조 분석』, 서울대 어학연구소
 , 명지출판사.
- 현평효(1964), 『제주도 방언의 단모음 설정』, 한국언어문학 2집
 ,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1971), 『제주도 방언의 음운』, 교육제주 17호
 , 제주도교육연구원.
- 정승철(1988), 『제주 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 국어 연구 제 84 호, 국어연구회.

ABSTRACT

The Phonetic Education of Japanese Language by Korean

Ko Hye Jung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Owing to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have a similar structure, the interference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could occur when a learner whose native language is Korean acquires Japanese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tendency of Japanese pronunciation centered on the Tokyo dialect which is the common language of modern Japanese. The data of this thesis is based upon the interviewees speaking Cheju, Kyongsang and Seoul dialect, and their pronunciation is substituted by Japanese phonics.

1. The vowel phonemic in modern Cheju dialect is / a, ㅏ, ㅑ, o, u, ㅜ, i, E /, and the modern kyongsang dialect is / a, i, o, u, ㅓ, E / and that of Seoul is /a, ㅏ, o, u, ㅜ, i, e, ㅛ, ö, ü/. The number of each dialect's vowel is more larger than that of modern Tokyo dialect, / a, i, ㅜ, e, o /. For example, the [ㅜ] in Japanese could pronounce by replacing the round sound /u/ in Korean.
2. The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consonant system is explained by the lenis, fortis and aspirate sounds. The distinctive features is shown by bilabial voiceless plosive / p, p', ph /,[ㅍ, ㅑ, ㅑ], alveolar voiceless plosive / t, t', th /, [ㅌ, ㅑ, ㅑ], velar voiceless plosive / k, k', kh /, [ㅋ, ㅑ, ㅑ], and palatal voiceless plosive / c, c', ch /,[ㅈ, ㅑ, ㅑ]. Otherwis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Japanese system is / p, t, k /, the voiceless stop sound, and / b, d, g /, the voiced stop plosive.

- ① When the learner of Japanese language speaking Cheju and Seoul dialect utters the voiceless consonants [p, t, k], the voiceless sound is pronounced by [p', ph, th] in front word, and [p', t', k'] in middle word. The voiced consonant [b,d,g] is pronounced incorrectly [th, kh] or [t', k'] in front word.
- ② The voiceless consonant in Kyongsang dialect is uttered by the aspirate sound [p', th, kh]. The voiced consonant [b, d, g], especially the [b] in middle word is substituted by the lenis [b] sound. The [d, g] is incorrectly pronounced [th, kh] in front word.

3. Among the Japanese fricative [s, ts, tʃ, dz, dʒ], the phonemic [ts, dz] is mingled with the conditional allophone [tʃ, dʒ], and uttered by / c, z / or / s / in Korean.
4. The sound [ɲ] in the nasalization of vowel following [i, y, a, e, ɯ, o] is pronounced the nasal vowel [ỹ, ẽ, õ, ã, ũ].
5. The devocalization of a vowel in voiceless consonant could not occur in Korean dialects. This i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okyo dialect, and the length of one mora would be necessary to pronounce the Japanese language.
6. In glottal, the correct understanding and pronunciation training of the allophone of 「pa-gyoon」 sound is needed.
7. The / R / sound in Japanese, which there is no / R / sound in Korean, could be pronounced without consonant from vowel.
8. The pronunciation training is needed to differentiated from the short vowel and long vowel in Japanese.
9. The particular mora phonemic / Q,N / cannot pronounce separately, thus this held sound appear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nsonant.
10. The consonant - vowel structure is peculiar feature in Japanese syllable. But, this could be classified by the open syllable which is the phonological character in Altaic language. Besides, there is an mora phonemic in Japanese syllable.

In conclusion, it is evident that the primary obstacle for Koreans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his native one. Nevertheless, an effective

education for the learner to Japanese Language could be achieved by apprehending and having a clear insight about the knowledge of his native language with relation to the Japanese language.

< 附錄 >

발음 분석을 위한 자료

[모음]

1. 우마(馬)	우메 (梅)
2. 아이(愛)	아우 (會う)
3. 카에(買え)	카오 (顔)
4. フ-フ(夫婦)	フ-フ-(ふうふう)

[자음]

[p] : [b] 음의 대립

4. 칸판 (甲板)	칸판(看板)
5. 신비 (神秘)	신비 (審美)
6. 베라베라	베라베라
7. 판	판 (晩)
8. 파파	파파

[t] : [d] 음의 대립

9. 타이가쿠 (退學)	다이가쿠 (大學)
10. 텐키 (天氣)	덴키 (電氣)
11. 토히쯔 (統一)	도우쯔 (同一)
12. 토히쿄우 (東京)	도우쿄우(同郷)
13. 고히도우 (強盜)	고우드우 (合同)
14. 세이트 (生徒)	세이드 (制度)
15. 타케 (竹)	다케

[k] : [g] 음의 대립

16. カイ (貝)	ガイ (害)
17. キネン (記念)	ギネン (疑念)
18. クチ (口)	グチ (愚痴)
19. ケンイン (檢印)	ゲンイン (原因)
20. コゴ (古語)	ゴゴ (午後)
21. カキ (柿)	カギ (鍵)

[dz]음

[dʒ]음

22. ヒザ (膝)	ジヨク (時刻)
23. ザセキ (座席)	テジナ (手品)
24. チズ (地圖)	オヤジ (親父)
25. ナゾ (謎)	
26.ゼンネン (前年)	

[s] : [ts] 음의 대립

27. スイカ (水火)	ツイカ (追加)
28. スキ (好き)	ツキ (月)
29. バス	バツ (罰)

[tʃ] : [ts] 음의 대립

30. チイ (地位)	ツイ
31. チカウ (誓う)	ツカウ (使う)
32. チリ	ツリ (釣り)
33. チチ (父)	ツチ (土)
34. クチ (口)	クツ (靴)

が行 鼻音

母音의 鼻音化

35. カガミ (鏡)	カンアン (勘案)
36. カイガ (繪畫)	イチマンエン(一万圓)
37. シゴト (仕事)	レンアイ (戀愛)
38. ヒゲ (鬚)	ホンヤ (本屋)
39. ショウガッコウ(小學校)	エンエイ (遠泳)

母音의 無聲化

성문음

40. キク (菊)	オヘソ (お臍)
41. クサ (草)	ヘタ (下手)
42. ヒカリ (光)	シハイ (支配)
43. アリマス	タイホ (逮捕)
44. イキマス	ヒエ (冷え)
45. ココロ (心)	ヒト (人)
	ホテル

[r]음

47. ラグビー	サンリン (山林)
48. レントゲン	クンレン (訓練)

短音：長音의 代립

49. オバサン (叔母さん)	オバアサン(御祖母さん)
50. イエ (家)	イイエ (否)
51. ヨジ (四時)	ヨウジ (用事)
52. クキ (莖)	クウキ (空氣)
53. イッシュ (一種)	イッシュウ (一周)
54. オク (置く)	オオク (多く)
55. ココ	コウコウ (高校)
56. クツ (靴)	クツウ (苦痛)

促音

57. カッソウ (滑走)	カソウ (下層)
58. サッカ (作家)	サカ (坂)
59. マッチ	マチ
60. イッテ (行ッテ)	イテ (居テ)
61. キッテ (切ッテ)	キテ (来テ)

撥音

62. カソウ (下層)	カンソウ (感想)
63. サカ (坂)	サンカ (参加)
59. アマリ	アンマリ
60. ニキ (二期)	ニンキ (人気)
61. アナ (穴)	アンナ